

2022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자료집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활기찬 농촌이 행복한 공주를 만든다

2022. 9. 농촌생각 신활력포럼
액션그룹 리더 100인 도출 슬로건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공주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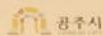
- 여는 글
- 응원의 글
- 전하는 글
- 현장 지원 소감



도시와 농촌이 함께해서 더 활기찬 공동체!

2022년 공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발대식

2022. 4. 19.(화) 14:00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Contents

2022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자료집

■ 여는글 – 추진단장

배성의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

■ 응원의 글 – 추진위원

이소정 공주시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남성애 (전)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양근승 공주시마을만들기협의회

김진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김세일 공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국진 (준) 청년창업네트워크

■ 전하는 글 – 추진단 사무국

고철용 공주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 겸임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백인순 공주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팀장

양중화 공주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연구원

■ 현장 지원 소감 – 코디네이터

신미예 컴퓨터 관련, 새마을회

박보경 디자인, 귀농귀촌

방순일 체험휴양마을, 체험농가

김기범 주민자치회, 문화활동가

김규숙 마을만들기, 가공농가

한길로 영상촬영편집, 홍보

성윤기 청년, 외식창업

■ 액션그룹

01

농산물가공



공주계실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믿음의 집

바베큐두령마을

열린누리

농업회사법인공드림(주)

오색공주

사봄연

수백향

농업회사법인 (주)밤이면밤마다

농업회사법인 밤툼이마을(주)

봉곡2리 마을회

02



농촌생활문화관광



유구인건연구회협동조합
 공주시귀농귀촌협의회
 신학모
 공주역사문화사랑단
 금강달빛문화창작소
 도시텃밭연구소
 리사 그리너리
 마을에서 행복 찾는 사람들
 공주시정원문화연구소
 고마무지개
 자리아타

03

청년




고마재주꾼
 (주)공스타
 공주시청년보부상협동조합
 (주)어콜렉티브그레인 농업회사법인
 컴바인랩

04

홍보유통마케팅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
 고마와유협동조합
 공주상인 협동조합
 공주향협동조합
 유계리 마을회
 (주)신풍애농부들 농업회사



2022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자료집

활기찬 농촌!
행복한 공주!





여는 글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인 액션 그룹들을 발굴 육성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농촌 발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2022년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공동체경제 아카데미 1기 과정을 통해 총 33개 액션그룹과 액터(활동가) 200여 명을 발굴 조직하였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아이디어들이 좀 더 다듬어지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들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많은 액션 그룹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기 액션그룹들이 짧은 사업 기간 동안에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정리해 성과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과자료집의 발간을 통해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가 더욱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이들의 도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촌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액션그룹들을 발굴 육성하여 농촌 활력 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공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공주시농촌신활력사업추진단장 **배 성 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연 액션그룹들을 위한 응원편지”



추진위원 이소정

공주시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농촌과 함께 성장하는 가치 바탕으로 지역 사회 경제발전을 실현할 조직을 발굴해 육성하고 사회공동체 특화단지 등 관내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지금 공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사람과 조직을 통해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 넣어 지속적 발전과 농촌에 구축된 지역자산을 활성화하여 성장하고 공감하는 목적이기에

액션그룹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33개팀의 액션그룹을 배출해서 경제기반 목표에 한걸음 나아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소액 주민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단체를 지원해 농촌을 활성화 시켰으며 지금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인재를 양성 유치와 귀농귀촌에 한 몫을 한 것으로도 기대 되었다.

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다소 액션그룹의 내부적 선거기일과 서류가 늦어진 고초는 있었으나 수준 높은 퀄리티(quality)와 공유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는 모두 칭찬이 많았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농촌신활력플러스 활성화로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여성이 기회를 찾고 진취적인 사회활동의 첫걸음이 되길...



추진위원 **남성애**

(전)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단체 회장님들의 진취적인 마인드와 무엇이든 말만하면 척척 만들어 내는 재능들을 보면서 그들의 역량을 키워 생산적인 공동체 활동에 적용시키면 조용한 농촌이 생기와 활력이 일어날까 생각을 많이 하던 차 추진단에서 연락이 왔었다. 생소했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내가 추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그 사업의 매력과 진가를 알게 되었다.

농촌의 여성은 도시의 여성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 사회인 농촌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고 그 역할의 중심에 여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우 혹은 인정이 야박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들어 여성단체에 소속된 단체 안에서 남·여로 구분하여 엄연히 같은 위치의 권한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산하처럼 취급하고 그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되고 있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주어진 역할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아닌 스스로 필요를 찾고, 잘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갈고닦아 그것이 자신의 업이 된다면 그 지위 향상은 말 그대로 스스로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농촌의 역량 있는 여성들이 의 기투합해 제대로 된 일 한 번 일으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한다.

2022년도 1기 액션그룹 중에도 여성 중심 특히 농촌 여성 중심 액션그룹들이 다수 보인다. 그들은 서로 합의를 이루고 협력하고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안을 찾고 서로 격려하면서 말이다.

사업이 처음이라 서툴기도 하고 실수도 하였지만, 친근한 코디네이터들과 추진단 직원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한발씩 나아가는 모습이 기특하고 스스로가 잘했다! 대견하다! 할 것 같아 추진단으로서 가슴 설레는 감동이었다.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 들처럼 처음이기에 한 템포 느린 박자로 그들의 성과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면 그들은 무한한 잠재력으로 지역사회에 보답할 것이다.

현재 여성 단체의 리더들이 지극한 애항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활동을 자신의 역량을 가다듬고,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꿈꿔왔던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꿈을 전적으로 응원하고 동의하는 협력자를 만나 그 꿈을 이루길 진심으로 염원한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공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길 추진위원으로 진심으로 바란다.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공을 위한 한마디



추진위원 양근승

공주시마을만들기협의회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양근승입니다.

저는 공주시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추진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마을만들기 활동가로 생활해 오면서 농촌의 현실과 농촌 마을의 특성을 많이 경험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농촌 마을에 많은 도움과 변화를 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주시는 이 사업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인 액션그룹 발굴 등,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대가 더 큼니다.

주민생각현실화 사업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 사업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벌써 1차 액션그룹들의 성과가 나타났고, 2차 액션그룹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액션그룹별로 사업의 특성과 조직의 수준에 따라 사업 이해, 진행 수준, 성과 등이 서로 달라 단계별 관리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완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농촌과 연계되거나 청년들을 활용한 사업이 적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농촌과 사람을 잘 연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는 일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주시는 직장을 갖지 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공주시에 직장 없는 사람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농촌과 연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시켜 그들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진행해 간다면 농촌은 젊은 인력 공급으로 활력이 생기고, 청년들 또한 공무원이나 회사원으로 사는 삶을 지향하지 않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성공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직장 구하기와 공무원 공부에 전념인 청년들에게 농촌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알려주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직장인이나 공무원과 비교될 수 없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자신의 꿈이나 희망, 취미 등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 같은 무대를 농촌으로 돌려 농촌 사람들과 농촌 마을에서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자유로운 생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도전하고 실천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관심을 보이고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확실한 목표와 의지만 있다면 농촌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도시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감히 말해봅니다. 농촌이란 두려움은 농촌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될 해야 하는지 몰라서 생기는 것이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농촌을 잘 알리고, 사업의 기

회가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한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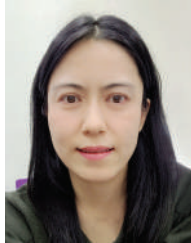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공주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들을 확인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 마을 사업의 특성에 맞춰 청년 창업과 액션그룹의 사업을 연계한다면 서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말하며 이상 제 의견을 말해봅니다.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인 만큼 꼭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 또한 추진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변화의 시작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



함께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 김진아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세움
상임이사

공주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기대로 추진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저와 제가 속한 조직이 가진 경험이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혹은 지역의 주요 이슈별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행정의 칸막이로 나누지 않고 현장에서 의미있는 활동으로 상호 연결되고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성장이 둔화된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사람들을 발굴, 연결하고 그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학습을 통해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팀으로 협력하고 활동과 사업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경제 아카데미 수료자 수, 액션그룹의 개소 수, 창업 건수 등 정량적인 목표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가치와 경험의

축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힘으로 변화를 지속할 수 있으려면, 액션그룹 스스로가 지원 시스템에 익숙해지지 않고 역량을 개발하고 자생력이 증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코디네이터 및 지원단의 노력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공주시 16개 읍면동의 고른 참여, 신규 조직 및 사람에 대한 발굴과 연령대별 참여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참여 경로와 정보 등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활동성고가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킨 한 해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직이 액션그룹으로 참여하여 사업 아이템을 다양 화하거나 고도화하면서 성장하고, 농촌의 삶 혹은 공주에서의 삶을 고민하며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사업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좋은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함께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즐거움과 보람으로 남아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더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작은 성공’을 응원합니다.



추진위원 김세일

공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이미 구축된 시설에 활력을 위해 활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회적경제 분야와 시너지를 내기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대표로, 추진위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농촌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없고, 건물만 남은 활력이 없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사람과 프로그램이 접목되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간과 장소가 부족한 사업아이템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연결되면, 농촌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너무 큰 가치를 바라보기 보다는 작은 시작과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술

에 배부르랴!” 라는 말처럼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사업답게 부처와 지자체의 법령과 규정에 맞추다 보니, 지역의 특색과 한계를 감안한 계획과 실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해진 한계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정책이 더 실현된다면 좀 더 나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작은 성공이겠지만, 도전하고 그에 따른 성취를 이룬것이 진정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공과 함께한 경험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으로서의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가 모두 충족되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사람이 남는다면, 다음이라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 하기에 여러 그룹이 함께 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우리의 도전과 노력이 헛되게 보일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면 작은 도전과 성공들이 모여 또 다른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고, 경험을 얻는다면, 그다음에 얻는 것은 성공일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주시만의 ‘가치혁신’



추진위원 **송국진**

(주)메이크프로덕션 대표

공주에 살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가 추진위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 덕분에 저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청년과 창업 분야로 임명되어 제가 지금까지 지원해 봤던 경험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생존하는 방법, 투자 유치하는 전략 등 현 시장에 적응하여 대입 할 수 있는 경영 전략들을 토대로 사업 설계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농촌은 시장 자체가 불균형하고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해 시장 규모도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론적인 도움도 누군가에게 받아야 겠지만, 초기 사업 설계와 중장기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필드 경험이 있는 제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도움을 받아 자리를 잡게 되었듯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뻐했습니다.

청년창업 분야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현대사회의 거벽(巨擘)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지방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의 벽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막혀 있는 보조금 사업을 사업단과 코디네이터들의 노력으로 농촌의 수준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A to Z를 컨설팅 받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과거에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면 아마 참여자들 모두가 ‘왕세자(王世子)’ 급이 있을 겁니다. 처음 참여한 사람들은 이 과정도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권역의 지원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순간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청년 창업’ 분야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우위점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혜택이 좋다고 해도 주변 도시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공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하는 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선택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농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농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공주의 CDO(Chief Destruction Officer : 최고 파괴자) 역할자로서 공주의 농촌산업을 다르게 해석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리드해야 합니다. 지역에 수많은 지원 사업들이 존재하지만 공주의 농촌 지원사업의 아이코닉 사업으로 인식되어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농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고 배출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이 모든 사람들을 창업시키는 개념의 사업이 아니

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많지만 공동체경제로 보면 공주시 지원 사업들과 비교하여 브랜딩이 명확한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참여비율에 비해서 청년 참여자가 저조하다는 점과 실제 창업을 하여 수익화까지 발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창업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 수익을 위한 인큐베이팅이 전반적으로 레벨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역량강화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실질적인 생존 법과 산업에 대한 분석과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1기생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을 처음 진행하듯 추진위원회 모두가 익숙한 업무가 아니기에 모든 참여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이번 1기생들을 통해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니 2기 때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되고 있습니다. 분명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도권도 아닌 소멸 위기 지역의 '농촌'에서 창업을 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공동체 정신을 통해 모두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과 추후 쌓일 부가가치들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액션그룹들이 만들어낸 가치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혁신들이 쌓이면 분명 공주시는 소멸위기 지역에서 벗어나고 타 지역과 비슷한 사업들이 아닌 공주시에서만 가능한 아이코닉 브랜딩이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행정팀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나의 일처럼 여겨주신 코디네이터님들, 공주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있게 도전해 주신 액션그룹님들,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단장님까지 모든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첫 열매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이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노력해 주심과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이 전달되어 모두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함께해온 3년~~



사무국장 **고철용**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시작하다.

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항상 고민했던 것이 있었다.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처음 센터를 개소했던 날부터 이 글을 쓰는 지금 순간에도 여전히 고민이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다니고 주민과의 대화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연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나에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고민을 조금 덜어낸 사업이자 혹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처음 사업구상의 시작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고 강화하는 게 목표였다.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좀 더 큰 사업으로 다르게 말해 보조금 사업을 통해 사업을 해보고 계획서를 만들어보고 조직은 운영해보고 구성원간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는 보조금 사업의 ‘을’이 아닌 행정의 파트너로서 용역도 하고 계약사업도 하는 자격있는 다양한 공동체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행정이 원하는 사업만이 아닌 정말로 조직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공동체를 감히 공주시 곳곳에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준비한게 본 사업이었다. 그렇게 ‘도시와 농촌을 잇는 공동체경제’ 비전을 가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시작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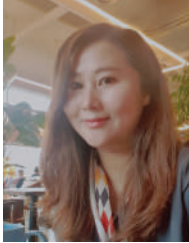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순항하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촌에서는 더욱 사람이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면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 항상 격려와 지원해주시는 추진위원 16분, 액션그룹 한 곳 한 곳 성심을 다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코디네이터 7분, 처음이지만 발맞추어 활동해주시는 액션그룹 33개팀 그리고 성실한 추진단까지, 좋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했기에 순항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본 사업이 색깔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나고 질문 받는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색깔이 없기에 너무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에 우리의 목표와 가능성을 설정하여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그렇기에 남들보다 더 확장성이 있다고 자찬해 본다.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나아가 각각 특색을 갖춘 조직을 만들면 중국에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공동체간 협업과 연계 등의 시너지도 발생할 것이다.

우리의 사업이 조금 더더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지금처럼 극복해낸다면 우리 지역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농촌 미래의 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팀장 백인순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2021년 6월에 공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담당자로 부임하여 처음 맡은 일은 기본계획 설계였습니다. 이미 훌륭한 예비계획이 나와있었고 농촌 정책에 저명하신 단장님과 유능한 사무국장님이 계셔서 공주시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굉장히 에너지 넘쳐나겠다는 기대가 충만하였습니다.

12년 전 농촌 마을로 귀촌하여 현재까지 100가구 미만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엄청난 매력이 있는 이곳에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농촌은 살기는 좋지만 비전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교육·문화 인프라가 없다' 라는 문제점을 말하며 젊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조 중심 생산 산업은 생산 사업체가 모여있어야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산업단지 등이 밀집되고 일자리가 생겨나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산업 생산조직은 매우 중요한 씨앗입니다. 기존의 제조 생산 중심의 패

러다임에서는 농촌이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앞으로 달라질 4차 산업시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개인 능력으로는 맞서기 벅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으로 저비용 생산, 고효율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연대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꿈꾸고 만드는 농촌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농촌사업은 기회와 한계가 뉘비우스의 띠처럼 맞물려있는 특수한 곳입니다. 농업은 농촌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 외에 농촌사회 유지, 환경보전, 국토 균형발전, 생물 다양성 유지, 식량 안보 유지, 전통문화 계승, 경관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 (Multi-functionality)'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공익적 가치 즉 농촌의 어메니티 제공 기능을 활용한 '농촌 살리기' 이전의 '농촌 활력 일으키기' 를 주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을 기반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작은 사업을 실행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회의 땅인 농촌에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 아직 아무도 그림을 그려놓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 과학기술이 유전자 조합으로 물질적 풍요의 삶이 되었고,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로 2단계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살고 싶은 농촌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일에 도움이 된다면 보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색 있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시도하고 도전하여 농촌의 미래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가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결실과 2023년 사업의 기대



연구원 양중화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담당자로 임용되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알아가면서 앞으로 겪게 될 다양한 경험을 기대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추진 위원과 액션그룹들을 만나 함께 소통하며 발전할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난 그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농촌 유형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소멸하고 있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의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더 좋은 유형을 자원들을 새로 투입하면 될까요?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결국 사람의 인식과 역량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단은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액션그룹들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션그룹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며 더욱 발전한 새로운 시스템을 농촌에 적용시키고 나아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2년도 주민생각현실화 지원사업을 통해 33개소의 액션그룹을 발굴해 자립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액션그룹들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만이 아닌 다른 국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용하는 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33개소의 액션그룹이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사용하고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코디네이터를 액션그룹들과 매칭,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단 연구원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밀접한 지원을 통해 액션그룹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공동체경제 아카데미 2기를 통해 새로운 액션그룹들을 선발할 예정이며 액션 그룹들의 단계별로 구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액션그룹들의 양적인 성장이었다면 2023년과 2024년에는 액션그룹들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액션그룹들의 판로 및 컨설팅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022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33개소의 액션그룹의 선발,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33개소가 e-나라도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품의, 결의하는 방법, 단체(법인)의 집행 절차를 교육하여 사업을 마무리한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사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기대합니다.



코디네이터 신미예

담당액션그룹

- 공주시귀농귀촌협의회
- 고마재주꾼
- 고마무지개
- 공주시정원문화연구소
- 공주역사문화사랑단



초심(初心)

최근 몇 년간 마을에서 소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과 서로 화합하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마을에서 소외 되지 않고, 세대 구별 없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활동들을 하였다. 하지만 도계 마을을 비롯하여 주변 마을에서는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공주시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선정되어 사업공모와 코디네이터를

모집하여 도전하였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사업추진단과 액션그룹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활동 범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액션그룹들은 그 분야에서 지명도가 있어, 제품 개발도 하고, 기술 전수도 가능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보누설 차원에서 액션그룹의 활동에 쉽게 다가서지 못한 점도 있었다.

다만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겪었던 어려움 등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일은 즐거웠다. 그동안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라포 형성은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목소리와 말에 믿음이 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증빙서류, e-나라도움 사용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적 관계를 떠나서 우리 공주지역의 같은 주민으로서 만남을 유지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역량을 공유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로 성장하고 싶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액션그룹보다도 내가 아닌가 하고 감히 생각

해 본다. 집, 마을, 면 소재지 정도만 생각하고 우선 우리 마을부터 좀 변화해 보자는 매우 근사한 생각만 하고 살았다. 그리고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래~ 안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점점 열정도 식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 만나는 일이 싫어질 즈음 이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면서 공주시에 거주하는 몸과 마음이 멋진 분들은 모두 만나고 다니면서 치유를 받은 기분이다. 대부분의 액션그룹은 자생력이 부족하여 보조금에 의존하여 활동을 유지해오는 정도였으나 항상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액션그룹들을 만나면서 내 삶의 태도에 분명히 영향을 주셨다.

또한 액션 그룹들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 2023년도에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써 경쟁력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다. 또한 작은 성과로 이 사업을 통해 33개의 액션 그룹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정산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였다. 정산 서류 증빙자료를 준비하며 각 액션그룹의 대표님, 총무님들께서는 생업으로 바쁜신 가운데에도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면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미안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해 주셔서 코디네이터로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담당 코디네이터가 아님에도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행사 때마다 반갑게 맞아 주셨던 유계리, 계실리, 오룡리 마을 어르신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업을 추진시 좋은 감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류처리, e-나라도움 사용, 사업 추진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총무나 사무장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업 진행 말미에는 액션그룹 내부 갈등도 발생했었고 추진단과 액션그룹 사이 의사전달이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

다. 사업추진단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보다는 액션그룹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액션그룹 대표 품의서 및 결의서 등 문서정리 및 e-나라도움 실무자, 활동 사진 정리자, 활동 서명 정리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코디네이터로서는 사업계획서를 분석, 분류하여 즉, 강사비, 재료비, 차량 임대료, 장비 임대료 등으로 구분하여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액션그룹이 활동을 하기 전에 사업수행 처리과정을 이해시키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도록 요청하면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액션그룹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점은 e-나라도움 사용하시는 것과 문서작성을 대부분 어려워하셨다. 기회가 된다면 한글 문서작성이나, 엑셀활용을 배우고자 하는 팀이 있다면 기본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 또한 e-나라사업등록 뿐만아니라 사업 변경 절차 등을 익혀서 액션그룹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을 키우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액션그룹들이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량을 갖춘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다.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BMC(Business Model Canvas)의 실습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까지도 코칭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과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

추진하는 사업의 모니터링,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코디네이터로 성장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코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어 귀농 귀촌하여 살고 싶어하는 공주! 면 단위의 마을에도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문화 생활이 가능한 실버공간이 있는 공주가 되길 희망해 본다.

삶의 새로운 활력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

코디네이터 **박 보 경**

담당액션그룹

- 금강달빛문화창작소
- 도시텃밭연구소
- 봉곡2리 마을회
- 자리이타
- 농업회사법인 (주)밤이면밤마다



코디네이터 일은 남편의 권유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시에 이주해 오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주시를 제대로 안다거나 즐기지도 못한 채로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를 본 남편이 제 적성에 맞는 일일 것 같다고 추천했어요. 들여다보니 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향하는 바가 귀농귀촌을 한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선뜻 지원했죠.

액션그룹과의 첫인상은 아무래도 낯선 데다 모두들 무언가 불만사항이 많아 보였고 그저 좋지 않은 앓았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웃음이 나는데요. 액션그룹을 가까이에서 마주한 처음이 아마 공동체경제 아카데미 실행과정 1:1 코칭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의 저는, 궁금한 점을 묻고 부족한 부분을 도움 받아야 할 자리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힘든 일들과 문제 제기만을 하는 분들을 보고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구나 예상하며 흠칫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의 현장지원은 액션그룹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면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회

계업무, 지출서류 점검 등 때마다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하여 컴퓨터 활용과 디자이너의 경력으로 필요한 분들께 지원 드린 것 같습니다. e-나라도움 활용이나 서류 작성 등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홍보물 디자인이나 상품 디자인의 방향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코디네이터 업무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은 많습니다. 우선 중간 점검을 게을리한 것이 가장 아쉬워요. 구두상으로 확인하고 믿어오던 것이 마지막 단계에 업무가 몰려 액션그룹 분들이 차분히 정리해야 할 시간을 서류 속에 파묻히게 해 버린거죠. 또한 저의 지원이 로컬액션그룹의 가능한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발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방법적인 면에서의 연구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일 년 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을 오답노트처럼 잘 만들어 참고하며, 내년에는 기록과 정리에 좀 더 충실히 하면서 우리 사업의 제목처럼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한 해를 목표로 공부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또 누리보려 합니다.

제가 꿈꾸는 공주시는 놀러 오고 싶고, 와서 보고 싶고, 와서 보면 살고 싶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사실 저 역시 친척이 살고 있어 놀러 오곤 하다가 공주의 매력에 빠졌고, 귀농하고 싶다는 남편에게 공주시로 가자고 해서 오게 되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이좋게 오손도손 사는 이쁜 도시, 살맛 나는 도시는 누구나 원하는 곳일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공주시가 그렇게 되는 것에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고자 배우며 조금씩 움직여 보는 중입니다.

제가 보아온 1기 액션그룹들은 역량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철학과 마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배울 점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담당한 그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강달빛문화창작소 노*란 대표님의 경우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며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놀라운 책임감과 체력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원인 최*옥 대표님과 운영진분들 역시 웃음 잃지 않으며 함께 협력했고 또 함께 고생도 했죠. 무더운 유구섬유축제 현장에서의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함께 겪곤 했지만 지나고 나니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건 참 예외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텃밭 이*숙 대표님, 신*국 대표님 연령과 건강을 뛰어넘으며 활동하시는 것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짐을 명백히 보이시며 계속해서 농촌문화를 생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활력을 찾아가는 행보가 멋집니다.

밤이면밤마다 김*영 대표님, 참 부지런한 분이시죠. 취미활동과 자기 관리도 잘하면서,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 생각, 효와 가족 사랑까지, 마음

발 그 끝이 어디인지 다 알기 어려운 분입니다. 이웃과의 교류 활발하여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생성 유지하는데 고수로 인정합니다.

봉곡2리 마을회 조*훈 대표님, 이장 직책에 맞는 마을 사랑과 수평적인 자세에 넘치는 유머까지 더하여 액션그룹을 잘 이끌어 가며 구성원들과 함께 만족스러운 성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함께 모색하려는 마을분들의 의지가 빛나고 있어 보여 더욱 기대됩니다.

자리아타 류*호 대표님, '사람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게다가 젊으니 더할 나위 없고 공주시에 대한 사랑은 또 어찌나 진심인지... 가진 역량으로 공주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을 꾸준히 계속 이어간다면, 그와 그 주변이 복 받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액션그룹 1기와의 첫 만남을 돌이켜보면 사람일 참 모를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만큼 가까워져 놀라움 따름이고 지면을 통해서나마 정말 감사했고 덕분에 많이 행복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성장하는 콩나물시루 같은 우리

코디네이터 방순일

담당액션그룹

- 공주계실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밤틀이마을(주)
- 유구인건연구회협동조합
- 수백향
- 컴바인랩



11년 전 귀농을 하며 옆 마을과의 인연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에 많은 관심과 교육을 받았다. 공동체란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오는 호감과 더 알고 싶은 호기심에 계속 활동하다 보니 마을활동가로 보람도 느끼던 중 농촌에 신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란 사업명의 매력에 끌려 코

디네이터로 지원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액션그룹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어렵고, 떨리고, 기대도 되고,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었다.

이렇게 갈팡질팡 울렁거리는 나에게 ‘반갑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며 악수를 청해주신 액션그룹 관계자님들과의 만남은 오히려 코디네이터인 나에게 든든한 안도감을 주었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자신있는 전문 분야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에 완전 존경심이 일어나는 멋진 만남의 시간이었다.

액션그룹의 현장지원은 조금은 생소하고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어색한 만남을 시작으로 어떤 것을 살펴야하나? 내가 과연 액션그룹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혹은 내가 소비자가 되었을 때 이런 상품 또는 행사를 좋아할까? ‘바꾸어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농촌 마을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농촌과 도시의 연계 행사를 진행하면서 액션그룹의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의 눈으로 고민했던, 앞선 경험들이 좋은 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함께 한 고민들의 결과로 상품과 디자인 포장법 등의 결과물 등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 가는 모습에 감사를 느끼고, 2차년도 연계 확산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액션그룹들을 보며 1년 차 활동의 성장비 바로 우리 액션그룹의 작은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코디네이터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지금에서 돌아보니 많지만, 조금 더 빠르게 액션그룹들과 소통을 시작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더라면 조금 더 깊고 넓게 같이 고민하며 사업 성과의 질적 향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

움이다. 코디네이터 한 사람의 역량으로 담당 액션그룹을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영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모여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갈 것이라 확신한다. 23년도에는 코디네이터들끼리 보다 더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

공주는 역사 문화 도시이며 도농복합 도시이다 공주 전체가 역사 문화로 볼거리이며 역사 속으로 들어가 즐길 거리가 많다. 이것이 도농복합도시, 즉 공주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농촌과 도시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한다면 공주를 넘어 인근 도시 대전, 세종, 천안, 아산 등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방문지로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활동가로서 꿈꾸는 공주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하고 역사 문화 도시다운 공주로 잘 보존하며 가꾸고 도시는 소도시다움을 유지하며 농촌은 더 농촌답게 유지하여 가꾸어 나아갈 때 비로소 공주다움을 찾고 그 특별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차 년도를 함께 한 5개의 액션그룹에게 많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코디네이터 업무도 처음이고 액션그룹의 주민생각현실화 사업도 처음이라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화드리고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실수한 부분도 너그럽이 넘어가 주시는 대표님과 운영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차 년도를 진행해 보신 경험을 토대로 2차 년도에는 더욱 멋들어지게 계획하신 사업을 이끌어 가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쁜 이미지는 개선하고 좋은 이미지는 성장

코디네이터 김 기 범

담당액션그룹

- 공주상인 협동조합
-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
- 신학모
- 공주향협동조합



공주시는 예전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로 많은 시민들이 농업 활동을 겸하며 지내는 지역입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연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남들보다 많이 알고 지냈습니다. 2021년 우연히 공주시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던 중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 [2021년 마을커뮤니티과정]을 알게 되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코디네이터선정 공고를 기다리며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때를 떠올리며 헛웃음을 짓곤 합니다.

처음엔 코디가 되면 농촌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마음먹었지만 정작 코디로 선정되고 보니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 초심만 잃지 말자~ 내가 처음 코디로 지원한 동기처럼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 말입니다.

2022년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액션그룹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판단은 액션그룹이 하시겠죠.

제가 담당하게 될 액션그룹과의 만남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주시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코디분들 소개와 함께 코디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리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전면을 잘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부끄러워서요. 저는 4개의 액션그룹을 배정받았고 이날 참석한 액션그룹 관계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코디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코디로서 4곳의 액션그룹을 담당하다 보면 각기 다른 요구사항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공주 밤을 홍보하는 공주상인 협동조합은 구운 밤 홍보시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기도 하고 밤을 나눠 주기도 하고 필요 물품이 생기면 사다 주기도 했으며 전통주를 빚고 발효식초를 만드는 교육을 받은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은 갈 때마다 전통주 시음과 생소한 발효식초의 맛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신학모는 솔직히 어머님들이 많아 사업 전달사항만 전달해도 척척 다 해주어서 다른 지원을 못해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코디네이터 중 한 분이 이사를 하셔서 나중에 배정받게 된 공주향협동조합은 워낙 많은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며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아직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듯하여 아쉬움이 많이 드는 액션그룹입니다.

저는 보조금 사업 진행의 경험으로 연간 1억 가까이 되는 보조금 정산을 하다 보니 정산 관련해서는 자신감이 있었고 액션그룹의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다른 액션그룹에 비해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빠른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코디 업무 중 여러 액션그룹 방문을 하면 액션그룹은 감시자와 같은 눈으로 쳐다보며 왜 왔냐? 하는 눈빛을 보내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코디의 역할과 액션그룹이 해야 하는 일을 설명하기도 하고, 사업 관련 토론을 해가며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내가 지원하는 팀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싶은 욕심에 나의 담당 액션그룹만 신경을 쓰고 다른 액션그룹을 신경 쓰지 못한 점입니다. 내년엔 나에게 배정된 액션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액션그룹에게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 알려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액션그룹의 여러가지 사업을 보면서 나도 액션그룹처럼 여러가지 사업을 해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계기가 된 것이 저의 개인적 큰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공주시는 나쁜 이미지로 교통사고율 최고의 도시, 자살의 도시, 백제문화 탐방 시 스쳐 지나가는 도시, 인구 소멸도시 등 안 좋은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며 좋은 이미지로는 효의 도시, 교육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공주의 미래는 문화, 관광, 체육의 도시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시, 농촌의 공존과 협력,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문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 정신과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코디로서 액션그룹 사람들에게 생각의 전환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조언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이미지로 공주시의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좋은 이미지는 성장시켜 발전하는 등 생각을 바꾸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봅니다.

공주 알밤 홍보의 달인 공주상인 협동조합, 생각의 전환(어글리 과일 활용 제품개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연필과 연필깎이를 개발한 공주향협동조합, 개인의 역량 최고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 엄마의 마음으로 사업한 신학모, 20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무사히 완주해 주시고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아 코디를 떠나 공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정 고생하셨고 여러분 모두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액션그룹들이 많이 부족한 코디를 만나 너무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2023년에는 하시는 사업들 모두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버시면 코디 밥도 좀 사주세요. ㅋㅋ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2022 코디네이터 활동에 대하여....

코디네이터 김 규 숙

담당액션그룹

- 리사 그리너리
- 바베큐두렁마을
- 유계리 마을회
- 농업회사법인공드림(주)



2016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에 처음 발을 디게 되면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느낀 점은 워낙 고령 인구화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었다. 서류도 제 대로 정리가 안 된 마을도 있었고, 마을끼리 정보 공유도 안되고 있어서 마을 사진이나 홍보물, 경관 등 많은 기록 관리와 여러 가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던 중 공주시에서 코디네이터를 뽑는다고 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내가 맡은 액션그룹은 처음에는 총 5곳이었는데 한 곳이 사업 포기를 하여 총 4곳의 액션그룹을 맡았다. 원래부터 알았던 액션그룹도 있었지만 리사 그리너리와 바베큐두렁마을은 처음 대면하는 곳이었다. '나를 어떻게 소개를 할지' 라는 고민을 잠시 했지만 "제가 담당 코디네이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액션그룹이 예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먼저 다가와주어 회의나 행사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면서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였다.

내가 맡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은 도깨비권역 사무장과 마을만들기협의회 사무장 경력을 살려 마을공동체에 대한 갈등과 갈등 해소 등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고, 보조금 지출 및 지출 서류 작성 안내 등

을 해주는 일이었다. 많은 분들이 보조금 지출 방법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되었다고 하시고, 마을이나 구성원 사이 갈등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셔서 매우 보람을 느꼈다.

코디업무를 진행하며 담당했던 액션그룹 외에 다른 액션그룹들을 많이 방문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던 점이다. 2023년도에는 보다 많이 방문하여 액션그룹과 공감과 소통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싶다. 또한 나 스스로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갖추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어 액션그룹을 지원하고 싶다. 액션그룹을 만나면서 협업하는 동안 역시 나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일례로 리사 그리너리는 대표님의 경우, 예전에 유치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 보니 회계처리나 사업 운영 등을 알아서 주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도 얻는 등 인상적인 액션그룹이었다.

내가 바라는 공주시는 나이, 성별, 지역 상관없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으면 한다. 농업 농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라도 공주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추구하는 방향 등을 모색하여 더욱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공주시에 이렇게 많은 인재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공주시는 이런 인재를 계속 키워내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며, 무한 열정을 갖고 1차 사업의 결실을 맺었으니 2차 3차 산업과 연계, 융복합하여 여러 사업에 꼭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

코디네이터 한 길로

담당액션그룹

- 마행사(마을에서행복찾는사람들)
- 열린누리
- (주)어플렉티브그레인 농업회사법인
- 고마와유협동조합
- 신흥애농부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록화

코디네이터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여러 액션그룹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핵심은 지역을 아끼는 마음과 움직이는 행동력이었다고 생각했고, 활동하면서 보니 역시나 우리 액션그룹들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액션그룹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액션그룹은 사업 심사 때 만났었고, 어떤 그룹은 e-나라도움 사용설명회 때 처음 만났습니다. 사업의 시작에 앞서 다들 새로운 도전에 걱정도 되는 한편, 자기가 구성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열띤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액션그룹의 현장 지원은 초반엔 사업비 지출의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와 e-나라도움 사용에 관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의 내용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취지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상담도 있었습니다. 실행 첫해이다 보니 액션그룹과 저는 새로운 시스템에 어려움을 느꼈었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신 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액션그룹

의 특별한 활동이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사진과 영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처음으로 하는 코디였고 준비가 미흡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이 사업을 더 잘 이해하고 액션그룹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렸다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액션그룹들의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액션그룹과의 만남에서 더 여유롭고 원활하게 지원 가능하도록 부족했던 점을 채우고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장점을 살려서 액션그룹의 활동에서 아름답고 멋진 순간들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바라는 공주의 미래는 더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들이 모이는 따뜻한 공주' 이런 느낌일까요? 공주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처럼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자립이 가능한 모습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액션그룹들은 본인들이 가야 할 길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이어나간 점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교부금 전달이 늦어지고 사업이 늦춰지면서 사업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물을 때에 맞춰 재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경우, 사무실 임대가 늦춰져서 사업개시가 늦어지는 경우 등 시작이 순

조롭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대표가 바뀌는 그룹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 액션그룹들은 이런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사업을 한 걸음씩 성장시켜 왔고 첫해를 멋지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액션그룹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제게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스스로를 믿고 발전해 나가신다면 언젠가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코디네이터 성윤기

담당액션그룹

- (주)공스타
- 공주시청년보부상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믿음의 집
- 사보연
- 오색공주



새로운 도전

도시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육아를 위해 공주로 이사 오게 되었다. 식당에 근무하며 집과 직장이 옆에 붙어있어서 같이 육아를 하려는 이유가 컸고, 육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이기에 저와 와이프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한 일들이 더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며 생활하던 중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처음에는 외부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다니며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하였으며, 식당 오픈 시간도 오후 2시까지 영업하게 되었다. 그 생활이 2~3년 지나다 보니 이런 삶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같이 일하고, 스스로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추천받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코디네이터에 지원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주방장으로서 살아오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스스로에게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묵묵히 혼자서 생활하는 주방장 생활만 해오다 보니 관계성 형성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코디네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벅차고 두근거렸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막상 만나 뵈고나니 나와 같은 정 많고 웃음 잃지 않는 동네 이웃이었다. 단, 업무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첫 만남에는 어색한 기류가 흐르긴 했지만 두 번, 세 번 만나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현장지원’을 정의하자면 “윗집 아랫집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코디네이터란 직업 특성상 현장지원 활동인데 각 액션그룹 대표님 이하 구성원들과 친밀도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서로가 색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친밀도가 형성된다 해도 업무적인 부분에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로서는 관계의 선을 유지하면서 업무적인 부분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이 분명 필요하다.

1년 동안 코디네이터로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특히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꼈

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0년 동안 가족만 보며 지내오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추진단 이하 모든 분들이 많은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줘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2023년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스스로에게 바란다.

내가 꿈꾸는 공주의 미래는 너도 나도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공주에 자리를 잡고 생활한지 햇수로 11년 차가 되어가고 있지만 처음에도 지금도 느끼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텃세”다. 경계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며 소외시키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받아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기에 공주로 터를 잡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정을 붙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이웃에게 다가가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022년 사업을 마무리하며 우선 각 액션그룹 대표님 이하 구성원 모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와 박수를 건네 드리고 싶다. 코디네이터로서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하지 만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세상은 혼자가 아닌 더 붙어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으며, 걸 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을 열고 보면 다 정 많은 이웃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나는 받은 게 많은데 코디네이터란 활동을 처음 접하는 저와 함께한 액션그룹 모두에게 못난 코디네이터를 만나 도움도 못 받고 고생만 한 것 같아 죄송 한 마음뿐이다.

2023년도에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액션그룹이 있을 것이고, 2022년도를 마지막 하차하는 그룹도 있겠지만 먼 훗날 과거를 생각할 때 좋은 기회에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경험을 했고 그 순간 행복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코디네이터란 직함이 스스로에게는 생소했고, 개인 여건상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중간중간 전문가 답지않은 생각과 행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까지 낙오없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는 코디네이터 선생님 모두 같이 화합하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 이 글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부족하지만 2023년도도 조금함 버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추진단, 코디네이터선생님, 액션그룹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디네이터 단체사진

농산물 가공





라벤더는 잘 있나요?

공주계실영농조합법인

공주시 사곡면



- 대표자명 : 이흥배
- 구 성 원 : 김철현 조항권 백승림 조영상 임동순 김구남 정구봉
조인상 강경자 정정숙 이춘자 김정숙 최여순 최연희
- 주 소 : 충남 공주시 사곡면





2016년 마을 발전을 위한 시·군 창의 아이디어(농식품부 주관) 사업 공모가 있다고 하여 그때 당시 이장(김무남)과 동계장(조민동) 그리고 마을발전위원(김철현) 등이 뜻을 모아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첫해에는 떨어지고 다음 해에 재차 도전하여 다행히 선정되었다. 2018년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실행 단체로 ‘공주계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조합원 수 15명으로 구성하여 첫발을 내디뎠다.

계실마을 곳곳에 향기 나는 식물을 심어서 체험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잘 사는 마을,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향기 나는 식물 중 라벤더를 심어 향수 및 에센셜 오일을 채취하는 등 라벤더를 활용한 여러 제품들과 입장료 수입으로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안겨주기로 하였다. 2021년 “반가워요 라벤더!”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라벤더는 잘있나요?”를 통해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출향인이 귀향하고픈 마을로 바꾸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도록 전 회원이 열심히 활동 중이다.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을 주민들의 무료 급식제공과 삶 개선을 위해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마을을 만들고 활기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향기와 빛깔이 빼어난 라벤더 꽃밭이 조성되면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특히 계실리에는 전국에서 오는 중앙 소방학교 교육생, 국가 민방위 재난 안전 교육생,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교육생들이 연간 13만 여명이 계실리를 다녀가는 만큼 이 교육생들을 활용하면 홍보는 자연히 될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 마을은 라벤더 제품 관련 네이밍을 완성하고 특허청 등록까지 마침으로써 상품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개발된 'LVND7'은 우리 마을 주소인 '라벤더길 7'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어 '라벤더길에서 일주일', '계수나무와 라벤더 이야기' 등 스토리텔링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올 한해는 '농촌마을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해였다. 계실리 성평등 인형극단도 우리 라벤더를 함께 홍보해 주셨는데 공주시 관내 27회, 세종시 1회, 경기도 화성시 2회 공연의 성과를 내어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공연 때마다 라벤더 묘목, 향주머니, 라벤더 오일 등을 선물하여 좋은 이야기거리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라벤더 오일, 라벤더 향주머니, 마을달력, 브로셔 등 마을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주시 관내 및 중앙소방학교,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교육원 등에서 전국에 홍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웠고 구성원 중 회사 경영 경험이 없어서 단결된 마음 뿐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기초장부 및 행정업무 미숙, 세무 회계, 노무관리뿐만 아니라 홍보 분야까지 어려움을 느꼈고 대중 매체 및 미디어 활용 등의 기술 부족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씨앗류의 수입 금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몇 개월씩 기다려야하는 상황을 미처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라벤더는 6월에 만개하기 때문에 그전에 집중적으로 자본이 필요함에도 보조금 교부가 늦게 내려와 짧은 시일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2023년은 꼭 1분기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나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어 사업비 집행에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령화 비중이 높은 우리 마을과 같은 곳에서는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원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본 사업을 수행해 본 결과 마을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마을의 경우는 교육훈련비등 역량강화사업에 주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수년간의 경험으로 사업을 확대할 역량이 있는 사업은 상품개발 및 홍보비, 자재비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키워가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계실리는 2023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라벤더 관련 네이밍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결속력을 다지고 싶다. 예를 들어 LVND7 쌀, LVND7콩, LVND7고춧가루 등등 말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소포장으로 구매 부담감을 줄이고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패키지에 접목시키고 싶다. 우리 마을의 상징적인 라벤더 보랏빛을 마을의 시설 및 건축물에 인위적이지 않고 어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 계실리를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의 계획은 약 1,000평 농경지를 라벤더 밭으로 조성하여 라벤더 집단재배 경관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본다.

계실리는 라벤더와 함께 계속 성장하여 온통 라벤더와 라벤더 꽃으로 보랏빛 잔치를 할 것이며, 라벤더하면 계실리, 계실리하면 라벤더, 보라색만 보면 계실 라벤더가 생각나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공주 라벤더, 대한민국 라벤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외국에서 계실리로 관광을 오는 마을이 되는 그날까지 정진해 나아갈 것이다.

“공주 라벤더, 대한민국 라벤더”



농촌 노인 인력을 활용한 쌈채소 재배 및 판매사업

공주시 유구읍

농업회사법인 민음의 집

- 대표자명 : 정덕진
- 구 성 원 : 박영신 이은성 정건오 윤광섭 윤영순 정득례 김경숙
- 주 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할머니의 손 맛은 무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살고 계시는 문금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분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자투리땅에 정성껏 농산물들을 재배해 보았지만 대부분 버려지거나 주민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경제적인 효과는 얻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활동으로만 그치게 되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우스를 짓고 어르신들께서 농사 짓기 편리한 현대적인 시설을 준비하여 여러 종류의 쌈 채소를 함께 키우고, 그것을 한 세트로 포장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생각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판매욕구를 조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듬 쌈 채소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과 조금이나마 이익이 발생하여 어르신들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믿음의 집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브랜딩 작업을 통해 제품의 외적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기관 로고와 제품 로고를 상의하면서 가장 적합한 로고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포장배송 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적인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정 고객이 많이 늘어났고, 제품에 대한 좋은 상품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브랜딩 작업 이전과 비교 분석 결과 최소 8~9%의 매출 성장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처음 접해보는 e-나라도움을 사용함에 있어 한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과 결산은 동일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구진들과의 많은 혼선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 보는 터라 정산 과정에 필요한 사진과 영수증 등을 잊어버려서 안타깝지만 자부담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하는 고민이지만,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꺼번에 6개월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산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어려움은 선진지 탐방 시 비슷한 여건을 가진 모델이 될 만한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선진지 견학 장소를 변경하여 다녀오 기도 했습니다.

쌈 채소 같은 경우, 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 더 소형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판매 되는 제품 또한 소형화된 제품들의 판매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에는 제품의 소형화와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제품의 보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품의 다양화에 필요한 외장재, 박스, 포장지 등을 개발하고, 선물용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쌈 채소 생물의 특성상 보관기간과 판매기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생산되는 채소를 이용하여 보관기간이 긴 장아찌를 종류별로 개발하고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농민들이 좋은 물건을 생산해 놓고 그것을 팔지 못해서 그냥 나눠 주기도 하고, 폐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도 받지 못할 정도로 싼 가격에 내놓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온라인 판매자 사이트 운영, 주문품에 대한 송장작업, 택배 송출작업 등을 제대로 할 만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기관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젊은 분들에게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거나, 직접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관에서 판매 사이트까지 함께 운영하여 판매에도 도움을 주신다면 금상첨화겠죠! 향후 5년, 10년 후에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공주시의 중앙과 동서남북에 '공주시 우수농산물 판매소'가 생겨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판매해 주고 주문받은 농산물을 포장해서 갖다 주면 송장작업을 통해 택배로 발송해 주는 대행소가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산들바람 타고 떠나는 텍사스 바베큐여행

공주시 이인면

바베큐두렁마을

- 대표자명 : 이희룡
- 구 성 원 : 안훈진 오근수 임지영 이재룡 윤순영 박은희 최설이
- 주 소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향토적이면서도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었으며,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고를 보게 되었고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바베큐두령마을의 사업은 논과 밭, 산이 어우러져 있는 시골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공급받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관광산업 및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1호 바베큐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베큐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 및 설계를 담고자 합니다. 바베큐두령마을의 사업은 마을사업을 넘어 공주시 전체의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생각플러스 포럼, 고마착한소비장터,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군들을 보았고, 그분들로 인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시간들이 참으로 좋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의 미래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좋은 듯합니다. 어디까지나 인재양성에 첫 발판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맛으로 승부합니다”



그동안 농촌생각플러스 포럼, 성과공유회 등 여러 행사에서 품평회를 가지면서 개개인마다 능력치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높게 사고 싶습니다. 맛과 향이 좋은 바베큐 고기를 다룰 수 있게 된 팀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케팅이란 뜻을 이해하고 뛰어 준 팀원, 바베큐에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소스 연구개발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 팀원, 지역에서 물자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원 등 모두 소중한 우리의 인적자원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팀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바비큐를 접목했고, 오랜 노력 끝에 일반 보통 시장에서 흔하게 맛볼 수 없는 맛도 구현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부심과 자긍심마저 듭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다양한 장소,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시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다양하게 예산 비목을 작성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작성해야할 파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바베큐 관련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데 증빙서류 준비에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한 꼭지씩 추진할 때마다 견적서부터 활동사진, 서명부까지 정리해서 사업 종료 후에는 추진 실적과 정산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바베큐두령마을은 향후 5년 내지 10년 후, 공주시에 하나의 문화 콘텐츠사업으로 발돋움하여 있을 것이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한 번쯤은 먹거리 관광객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중간조직인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중앙 정부나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주시민 누구나가 쉽게 사업에 참여하고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정보 제공 및 관련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중간조직이 없었다면 비록 작은 금액일지라도 특히 면단위의 마을에서는 사업 신청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농촌생활문화플러스사업을 통해 면단위의 마을에도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앞으로 더 멋지고 다양한 사업으로 활기가 넘쳐나는 공주를 기대합니다.



“바베큐의 본고장 공주”





농업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준비 사업

공주시 우성면

열린누리

- 대표자명 : 이현강
- 구 성 원 : 이미경 김현경 김태순 송복현 유혜주
- 주 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열린누리는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로 구성된 액션 그룹입니다. 소외된 최종증장애인들을 돌보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낼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던 중 '농업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준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린누리가 추진하는 '농업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준비사업'은 경증장애인처럼 스스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받아서 농사일을 배우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6명 장애인에게 45,000원씩 270,000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이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품목 정비 등을 하여 500,000원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에 통합되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 및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였지만 각자의 생각도 다양해서 화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방침을 따르며 모든 회원이 자주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사를 위해 땅을 파고, 파종을 하고, 함께 수확하면서 회원들 간에 단합이 잘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절실히 원하는 최종증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향해 순탄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일반물품이 아닌 생물로 생육의 시기가 있는 농작물이 결부된 사업비가 7월에 지급되어 차질이 많았습니다. 파종 시기가 지나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옥수수, 완두콩 등 모종은 폐기하거나, 파종을 했어도 생육시기가 맞지 않아 성장과 수확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장애우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주”



또한 농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과 그늘막 설치 등 필수 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용처를 확대해 주신다면 액션그룹의 부담이 덜해서 사업성과가 더욱 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조기 지급해 주신다면 농지를 일찍 정비하고 작년에 못해 본 이른 작물 완두콩, 옥수수 파종과 블루베리를 심어 최종증장애아동들과 더욱 신나는 농사를 지어보고 싶습니다. 재료비 처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정해주신다면 집중이 길지 않은 최종증장애인들이 쉴 공간과 용변 처리 공간도 마련하여 농사일에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린누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힘입어 2022년은 ‘농업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준비 사업’ 2023년은 ‘농업을 통한 최종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2024년은 ‘농업을 통한 최종증장애인 일자리 확장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5년 후 열린누리 건물은 최종증장애인이 일하는 모습을 입구부터 매장, 활동실 등에서 볼 수 있는, 공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물 최종증장애인의 일하는 쉼터가 되어있을 겁니다.





전통 향토음식 계승과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공주시 의당면

농업회사법인공드림(주)

- 대표자명 : 이희경
- 구 성 원 : 양근승 김기옥 김규숙 김기민
- 주 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전통 향토음식인 고추장 청태, 청국장 등 향토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들이 있어서 전통음식을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하여 고민도 많이 하고, 의당면에는 콩 농사도 많이 짓는 지역이라 지역농업 활성화를 어떻게 키울지 발전방향을 고민하면서 모임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공드림은 공주 제일의 전통 향토음식 개발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업농촌활성화 및 전통 향토음식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통 향토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공동체 결성과 현대화의 인스턴트 식품보다 몸에 좋은 전통 향토음식의 계승 및 공동 작업을 통한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또한 공동 작업을 통한 소득 창출과 전통음식 계승을 통한 자부심 상승뿐만 아니라 HACCP을 갖춘 제품 개발 사업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전통 문화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



이 사업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보다도 같이 한다는 공동체가 결성되면서 참여 회원들이 전통 음식을 계승한다는 자부심이 상 승되었다는 점과 고추장 청태와 청국장을 만들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나눔 전달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게 된 점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며 이룬 가장 좋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은 지역 농민들의 소득 창출 뿐만 아니라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구입을 위해 마을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었으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바로 구매하지 못하고 가게에 가서 구매하여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전통음식을 배우는 교육은 오래 전부터 전통 음식을 만들어 오신 어르신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데 강사 이력 등 증빙서류가 너무 까다로운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공드림은 전통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조성 구축과 식품허가



등록을 하여 직접 만든 청태와 청국장을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등 건강한 먹거리에 납품할 수 있고 인근 식당까지 연계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향토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농가수익 창출에 이바지 해보고 싶다.



농업회사법인공드림(주)에서 바라는 것은 지역 특산품 콩, 알밤, 고추 등을 활용한 전통 음식을 공들여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을 구매하여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농가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지역 주민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에 이바지 할뿐만 아니라, 공주시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공주시의당면에는 전통을 고집하면서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공주시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것 같다.

쌀
공
예
공





오색공주 힐링이야기

공주시 중동

오색공주

- 대표자명 : 권영란
- 구 성 원 : 여인자 고명예 송하린 장은주
- 주 소 : 충남 공주시 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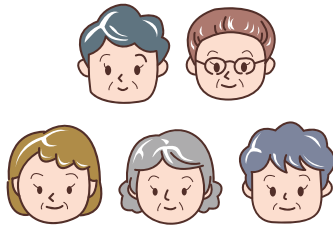


차(다도)가 매개체가 되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 공주시의 농촌신활력플러스라는 사업을 알게 되면서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던 멤버들이 뭉쳐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만남의 매개체인 차로 무언가를 해보고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평균 나이가 60.5세인 오색공주라는 시니어 그룹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주시를 대표하는 밤을 가지고 밤 쌍화차를 만들어 상품화 해보는 게 '오색공주'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안전한 약재를 사용, 기본 13가지 약재를 손수 자르고 덪고 말리는 법제 전 과정을 거쳐서 밤 쌍화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아가 감기 예방에 좋은 유자 밤 쌍화차를 만들어 보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상품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목표는 공주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차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오색공주



인증을 받 았다고는 하지만 조금은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차를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해 보니 시간과 노력,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 어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듯 차를 드 시는 분의 건강을 생각하며 온 정성을 쏟아서 차를 만드는 선생 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차가 완성되었 고, 차를 시음하던 날 그동안의 힘듦이 눈 녹듯 사라지고 사업 에 대한 고마움의 확신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힘든 과정이 었지만 밤 쌍화차와 유자 밤 쌍화차를 완성하고 시음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셨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밤 쌍화차를 하면서 각자의 스케줄로 인하여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개성적인 부분 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소모가 있던 점도 개선 보완이 필요하며 시설의 미약함으로 신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높았던 부분이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색공주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의약품 수준의 제품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인 국산 약재를 모든 원료에 사용 해서 국산 제품을 활용한 밤 쌍화차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밤 쌍화차와 다과를 함께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보고 기본 쌍화차를 원료로 건강에 좋은 다양한 쌍화차를 접목해 보겠습니다. 특히 청혈작용, 피부, 감기, 호흡기, 비염, 당뇨에 좋은 원료를 선별해 밤 쌍화차에 접목 보강해 보는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꼭 성공해서 공주시의 특산품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상품의 밤 쌍화차가 사람들로 인해 인정받고 베스트 상품으로 잘 팔리는 제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주시의 성공한 액션그룹의 '시니어 성공사례' 모델로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룹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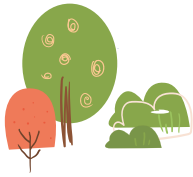
공주시 신평면

사봄연

- 대표자명 : 정영숙
- 구 성 원 : 신동균 신순옥 장수현 정복희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평면



시골에서 놀자^^



대부분 신풍면 주민자치회 환경분과 소모임을 하던 위원들이 농촌의 소멸과 낙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제의로 시작하게 되었다.

‘시골에서 놀자’는 농민이 마을의 자원을 알고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며, 농촌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하고자 추진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과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접목하면 농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활성화되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자료를 공부하여 역량을 키워나가자는 취지였다.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사봄연은 앞으로 공주시에서 통합 돌봄을 실시하는 TFT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며 이룬 성과로는 신풍면 주민자치회와 면민들에게 지역에 맞는 통합 돌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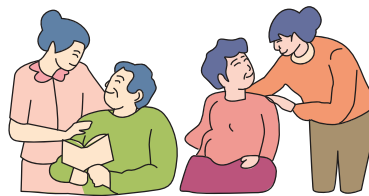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지역민이 함께할 때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어르신들께서 당신들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 드렸다는 점이다. 안타까웠던 일은 재무를 담당했던 회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영수증, 활동사진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봄연은 2023년에 서류를 간소화 해 주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회원 간의 결속을 다지고 회원을 폭넓게 늘려서, 회원들의 역량을 키워 마을 공동체사업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보고 싶다.

농촌과 도시의 상생이 이루어지고, 스마트팜처럼 선진 농업시설로 새롭게 정비된 환경에서 청장노년층들이 즐겁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농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어 어느 마을이나 소외되지 않고 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는 보호를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건강한 사람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와 문화혜택이 소외되지 않는 농촌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또한 도시에서 은퇴하고 공기 좋은 시골로 대거 이주해 오신 지식인, 의료인들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농촌을 만들고 싶다.





공주 밤을 활용한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비누 개발사업

공주시 신관동



수백향

- 대표자명 : 권오진
- 구 성 원 : 김희경 노신영 신숙인 최미영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공주! 하면 떠오르는 특산물 밤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미용 효과에도 매우 유효한 장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밤을 식용 이외의 다른 가공품으로 제작하면 어떠할까 하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공주의 특산물인 밤을 첨가함으로써 친환경에 특화된 밤 천연 비누를 개발하고, 밤 농가에도 조금이나마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로 웨이스트 제품인 밤 천연 비누를 기획 및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자는 소비 생활 실천 제안입니다. 수백향은 기후 변화 위기에 대비해 제로 웨이스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친환경적인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는 액션그룹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에 담기는 액상 석유계 계면활성제 세제가 아닌 친환경 밤 천연 비누로 대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차에서는 회원의 역량강화와 제품 기획 및 시험 제작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밤 숲 울인원 바, 울피 설거지 바를 시제품으로 제작했습니다. 밤 숲 울인원 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씻는 비누로 샴푸통, 바디클렌저통, 폼클렌징 등 여러 세안제가 필요 없어서 때문에 플라스틱통 없이 쓸 수 있는 천연세안제입니다. 그러나 밤 숲 울인원 바는 CP제조 기법이므로 머리감기에는 다소 뽀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밤 숲과 솜베리 그리고 다른 천연아로마를 첨가하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HP제조기법으로 만든 울피 설거지 비누는 울피의 클렌징효과로 세척력이 뛰어났습니다. 사용 후기 설문 조사를 통해 이 두 제품은 천연비누임에도 불구하고 세안제와 설거지 기능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환경 비누 인식과 사용감에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이 가장 좋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제조기법으로 만드는 만큼 비누의 품질과 효능감이 알려지고, 밤 천연 비누의 다양성과 품질을 계속 수정 보완한다면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성장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원료로 만드는 탁월한 밤 천연 비누를 생산하는 공주 지역의 대표 농촌 기업으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농장에서 직접 비누 공장을 차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밤 농가이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친환경 밤으로 알밤은 밤청을, 울피로는 제분하여 밤 가루를 만들어서 울피 설거지 바를 만들고, 밤 겉껍질까지 활용하여 밤 숲 울인원 바를 만든다면 손실 하나도 없이 밤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주 밤 천연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천연비누의 천연 거품에 도움이 되는 습베리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인도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대신 밤 가루 제분방식으로 습베리 분말도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100% 친환경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화장 비누와 설거지 비누의 공장과 허가권을 얻어서 지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 유통망인 인터넷 사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수제품이어서 사업이 번창할수록 일손이 많이 필요하므로 농촌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원대한 추진계획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농촌생각플러스 포럼, 고마착한소비장터, 성과공유회 등의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액션그룹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부재로 서로 간의 연대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사업 말미에 알게 된 친환경 밤 농가와 더불어 협업을 진행하게 되긴 했지만 친환경 밤 농가의 인프라 형성이 미흡하다 보니 친환경 밤 줍기 체험 농장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친환경 울피 마련과 밤 숲 마련에 어려운 점을 일일이 헤쳐 나가다 보니 제조의 어려움 이전에 주재료 마련 등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지만, 액션 그룹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가의 수익 창출만을 위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사업으로 지구와 농촌이 함께 살아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빵반찬 신개념의 확산 및 홍보

공주시 반죽동

농업회사법인 (주)밤이면 밤마다

- 대표자명 : 김혜영
- 구 성 원 : 김수희 김옥한 러령 변소영
- 주 소 : 충남 공주시 반죽동





10년 동안 이해관계 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 습니다. 같이 만들고 같이 먹고 하다 보니 정도 쌓이고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엇인가 표시 나는 일을 해보자’란 제안에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동안 늘 고민했던 것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계획서가 바로 “빵반찬 신개념의 확산 및 홍보” 입 니다. 빵반찬이라는 말도 신개념입니다. 잼을 만들다 보니 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로컬푸드로 만든 많은 먹거리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재미있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개인 활동의 제약으로 빵과 함께 먹는 음식 및 음료 쪽의 성장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추세를 활용하여 빵반찬의 상품들이 날 개 돋친 듯이 판매되는 날을 상상합니다.

“빵반찬 신개념의 확산”

처음에 순진하게 시작했던 “로컬푸드의 빵반찬 상품화 사업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 우친 한해였습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일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쉽게 덤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만의 속도로 가보자 라는 자신 감도 생긴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홍수로 인한 원자재 확보가 안 되서 바질페스토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여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내년을 기약하고 포기했습니다. 우리 단체의 대표적인 빵반찬으로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었는데 자연 재해 때문에 원자재를 구입 할 수 없었을 때 가장 난감하고 황당했습니다.

“레시피의 변신은 무죄”





로컬푸드를 가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조달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썬드라이즈 토마토도 못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농사 짓는 농부가 토마토 생산을 중단해서 대체 농가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의 작부체계를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말이지요~

제조업으로 가지 않으면 판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알밤축제 판매단을 모집하는데 자격이 제조 성분표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짐으로 제조업 허가가 없으면 운신의 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는 작은 햄섭인증이라도 받아야 그나마 설 자리가 확보될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꼭 햄섭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액션그룹은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주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액션그룹들이 큰 물줄기가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여 5년 후, 10년 후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기업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도 많이 내는 회사로 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더 큰 조직으로 확대되어 뿌리 깊은 무성한 나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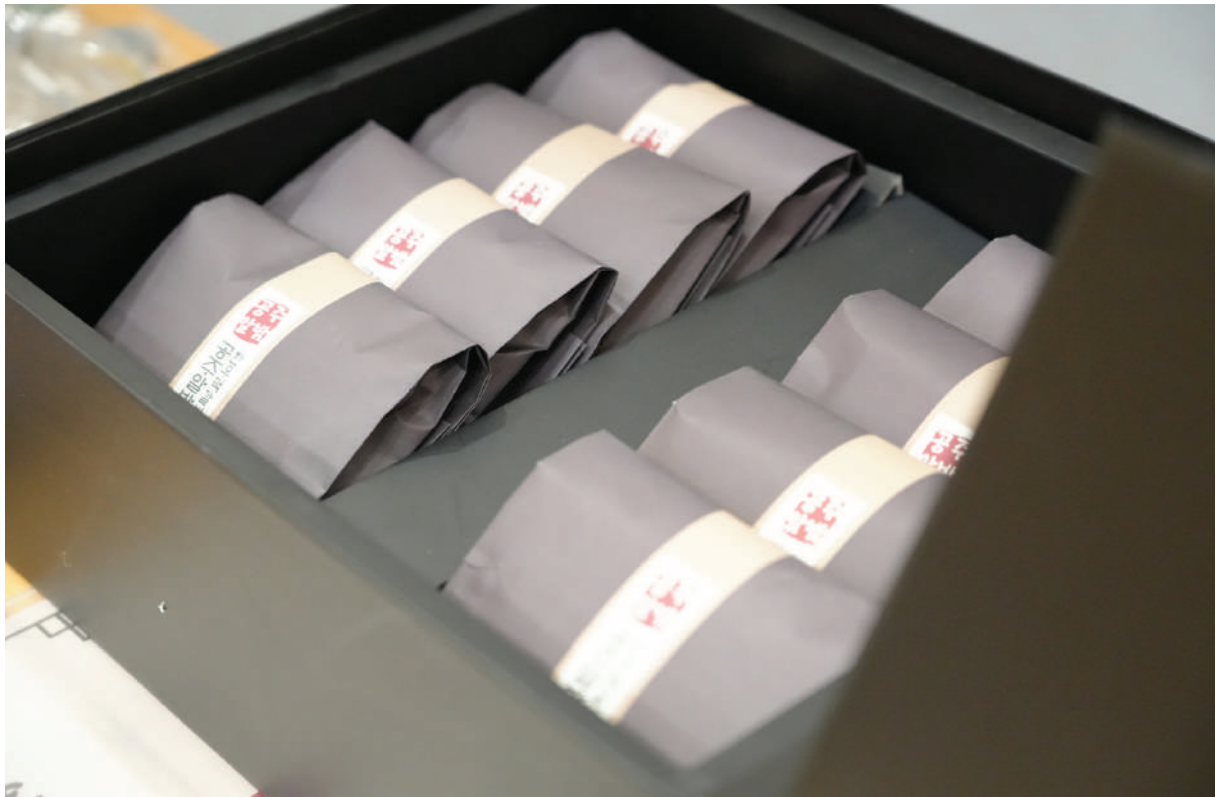
신제품 패키지 개발사업



공주시 정안면

농업회사법인 밤톨이마을(주)

- 대표자명 : 이태표
- 구 성 원 : 이명순 김연애 이양복 김인식 조성숙 외 31명
- 주 소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밤돌이마을은 2013년 지역주민들이 모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마을주민 55가구 중 35가구 37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밤, 콩 등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니어 및 농한기 유휴인력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돌이마을은 고령화되고 있는 마을 현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농한기 유휴 인력에게도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사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밤돌이마을의 주요 생산품 중 하나인 밤은 지역 특산물로써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하고, 고령화 되어가는 마을 주민들이 밤 수확 작업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1차 생산물인 밤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매년 높아져가는 생산 비용으로 인하여 수지타산이 안 맞아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밤돌이마을은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가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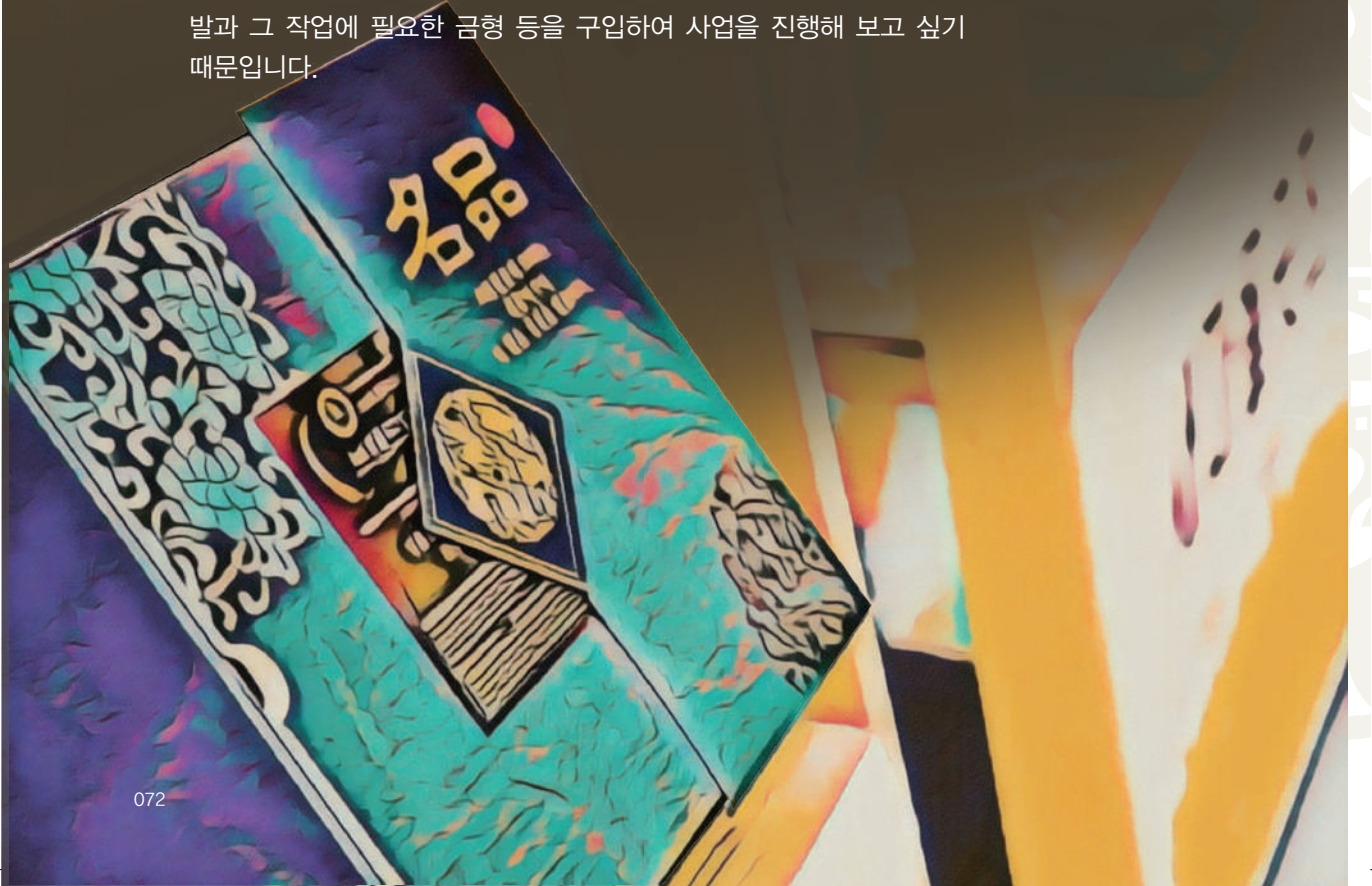
“밤마을 밤돌이마을”



높여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자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마을공동체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는 공주 알밤한우 떡갈비 선물세트의 패키지 디자인은 밤틀이마을만의 차별화된 상품포장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게 되었고, 고품격 선물용으로의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디자인을 완성해 나가면서 받게 된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소비자들이 바라는 선물용 상품의 니즈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주알밤한우 떡갈비 선물 세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해야 할지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소프트웨어 측면보다 하드웨어 측면 사업비도 많이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사업 목적이라면 하드웨어가 같이 투자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하드웨어 측면 사업비가 배분이 된다면 버려지는 밤 껍질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그 작업에 필요한 금형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고품격 디자인 밤툰이마을 패키지

여타 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밤툰이마을은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하여 실주민 수는 40% 줄어들었고 새로 유입된 주민은 손에 꼽을 정도며 그나마 농사를 짓는 생산 인구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약 5년 후 밤툰이 마을은 65세~75세가 마을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시 5년이 지난 후에는 70세~80세가 될 것이고 차츰 사라져가는 마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의 기업화와 마을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젊어지는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 후 농업의 기업화로 약 5명~10명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마을기업에서도 5명~1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길 바랍니다. 젊은 가구 10여 가구가 마을의 일 자리를 통하여 유입되기를 희망합니다.

밤을 가공하는 입장에서 공주시에 건의를 드립니다. 공주시의 밤 수확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적인 측면, 고령화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 이로 인한 생산비의 상승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지를 찾아야 합니다. 강원도 쪽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밤의 생산지를 찾아 자매결연을 맺고, 밤나무를 심어 밤 생산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밤의 공급처를 만들고, 공주는 그 밤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지속적인 공주 밤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본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를 꽃피운 생활도자기 판매 및 원당 맛집 사업

공주시 반포면

봉곡2리 마을회

- 대표자명 : 조남훈
- 구 성 원 : 이재문 신미예 정영애 이옥구 이정수 유춘자 장인성 송태익
- 주 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우리 마을은 마을 자산으로 되어있는 땅 한 평 없고 마을회관도 임대한 12평의 토지와 하천 복개 위에 지어진 볼품없고 소박한 회관일 정도의 아주 가난한 마을로 마을사람들의 염원인 살기 좋은 부자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주민화합을 이루고 주민의 역량을 키울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환경 정화 및 탄소 중립 실천 등을 이루기 위해 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의 취지에 부합하는 마을로 육성 발전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마을회관을 크게 증축하여 종합 복지 센터로의 역할로 노인의 쉼터와 요양 장소 및 어린 천사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는 유아원과 유치원의 역할을 하는 즉 마을에서 태어나서 마을에서 생을 마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을로 발전시키며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변의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만들어 마을 안에서 모두가 해결되는 자급자족의 마을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철화분청의 고장 반포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참여의식이 향상되어 견학과 역량강화 교육 등에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마을 사람들이 늘어남을 보고 매우 흐뭇함을 느꼈고, 정주민과 이주민과의 소통 의지를 구축하는 임원회 및 견학 등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해의 폭이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으며, 향후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시 활용할 소프트웨어(한식 요리, 전통 발효 식품, 바리스타 자격증 등)의 구축으로 참여 회원들의 역량이 늘어남에 만족하는 주민들과 이를 보며 부러워하는 주민들을 봤을 때 매우 흐뭇하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한지공예, 지푸라기 공예 등)의 실시로 마을기업 토대(마중물) 구축과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와 의견 수렴으로 마을의 문제점과 향후 지향해야 할 사업 구상이 쉬워지고, 많은 단체(도예촌, 컨설팅회사, 주민자치회, 행복복지센터, 반포중학교 등)와의 유대강화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도가 당초의 예상보다 저조한 면과 이주민 중 일부의 비협조와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간의 사소한 갈등 등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지푸라기, 가족, 도자기 공예 등)과 부자마을 만들기 위한 소득 사업(일자리 확대 등) 추진을 위한 강사 교육 확대와 마을 환경 개선과 정화로 깨끗한 마을로의 변화(탄소 중립 의지 고취)를 위한 마을 앞 국도변 꽃길과 꽃밭 만들기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과 배출용품의 구분 장소 마련과 일회용품 줄이기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의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해 보니 사업추진단과의 보다 많은 소통으로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서로 돕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마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사업 선발(획일적 평가에 의한 선발)로 마을의 발전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5년 후 우리의 모습과 공주시의 모습을 슬로건으로 지어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발전되고 살기 좋은 마을과 공주시!
보다 민주화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마을과 공주시!”



원당마을



농촌생활문화관광





백제 의상 및 인견 시제품 개발

공주시 유구읍

유구인견연구회협동조합

- 대표자명 : 정현주
- 구 성 원 : 차낙용 이재연 김의순 이연옥 윤은림 신미주 오영희
윤석경 양윤남
- 주 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풍기인견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구섬유도 인견으로 재도약을 꿈꾸었으나 그동안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 유구에 수국정원이 만들어지고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유구인견의 작은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구인견연구회협동조합은 이 작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실패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작업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뿌려진 유구인견 씨앗이 잘 자라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유구읍은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 열악하지만 직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유구인견연구회협동조합은 이 열악한 상황을 풍기인견처럼은 아니더라도 인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현재 유구는 인견보다는 수국정원으로 더 많이 홍보가 되기는 합니다.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 유구인견도 함께 홍보가 되며 매출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물의 메카 유구”



유구인건 활성화는 우리 협동조합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수국정원이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주변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유구인건 활성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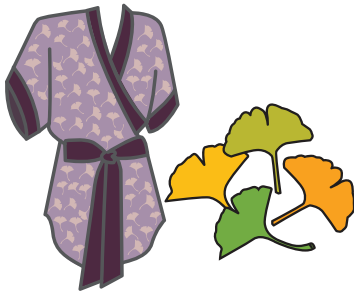
유구인건연구회협동조합의 원단은 기존 원단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생산된 원단으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협동조합은 각종 축제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마치고 회의를 한 결과, 이름만 올려있던 회원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원을 영입하게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몸소 행동으로 움직이며 협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회원들에게 보여줌으로 가장 좋은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구인건연구회협동조합의 자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참여자 연령이 높고 우리 협동조합에서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보니 코디네이터 분이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였어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동조합도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려고 노력하겠지만 언제든 컴퓨터 작업만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분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유구인건연구회협동조합만 해도 명칭만 다르게 하거나, 조합원들이 약간씩 바뀌거나, 대표가 바뀌는 등 세 번째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서 만들어진 유구인건연구회협동조합은 5년 후에도 당연히 같은 명칭으로 남아 있을 거고 제가 여전히 대표로 존재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회원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고 공주시는 물론이고 충남을 대표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하여 있을 것입니다. 유구인건 또한 풍기인건처럼 많이 홍보가 되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제품으로 성장할 것이며 유구 섬유가 살아나는데 유구인건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참고로 우리 협동조합은 2023년 마을기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인이 살기 좋은 공주시 만들기

-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공주시 -

공주시 계룡면

공주시귀농귀촌협의회

- 대표자명 : 권혁삼
- 구 성 원 : 임광빈 이정민 최현구 박보경 조윤미 배동주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공주시귀농귀촌협의회
Gongju Farming and Rural Council

공주시귀농귀촌협의회를 4년차 이끌어 가면서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으로 지역민과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던 중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알게 되어 망설임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한 사업 중 회원들의 호응이 제일 컸던 사업은 제과제빵 동아리, 벽화그리기 동아리, 음악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제과제빵 동아리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업과 취미 생활로 이어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고, 벽화 동아리는 여기저기 1~2군데가 아닌 마을별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벽화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음악 동아리는 악기별 실력이 동등하도록 하여 자체행사나 마을행사, 요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공주시로...”

공주시귀농귀촌협의회에서 진행한 6가지 사업 중 마을 주민과 함께 진행되었던 벽화 사업은 주민 모두와 회원들의 화합으로 실제 불편했던 귀농귀촌인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으며 취미를 공유하는 동아리 사업은 회원간 깊은 유대관계로 발전하여 시에서의 활동이나 단체의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반면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추진단의 반복적인 지도와 꼼꼼한 체크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 경험이 없어서 간식비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서류 정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임기가 바뀌는 단체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간편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사업자인데다 적은 사업비와 기간 부족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40% 삭감은 강사로 부족으로 이어져 제대로 수강할 수 없었으며 임대 및 임차 등도 수차례 변경 되면서 자체적으로 회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음악 동아리의 경우 2022년을 시작으로 화합하며 귀농귀촌 밴드 동아리를 이어가려 하였으나 2023년에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희망 지속 사업 중 하나로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

“공주에 살면 공주가 된다”



귀농귀촌협의회 벽화 동아리의 활동이 지속된다면 공주시의 지역별 마을은 벽화 관광지가 되어 널리 알려지면서 공주시의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과제빵 시니어 카페가 운영되어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고령화에도 살기 좋은 신활력의 공주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업자의 의견과 질문을 언제나 집중하여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추진단의 백인순 팀장님과 연구원님들 그리고 늘 쉽고 편하게 이끌어 주신 신미예 코디님의 배려가 있었기에 2022년도 공주시귀농귀촌협의회 사업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삶의 심과 휴식이 존재하는 공주”





농촌아 놀자

공주시 신관동

신학모

- 대표자명 : 신미란
- 구 성 원 : 김수진 박연희 오현아 김희숙 유리슬 이혜경 이정은 유은경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저희 신학모는 신관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으로 자녀들이 입학함과 동시에 학부모로 만나 알게 되면서부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임을 지속하다보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교육을 듣고 참여하며 ‘신학모’라는 액션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제는 만장일치로 농촌과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할 수 있는 것들로 계획하기로 하였고 사업명은 ‘농촌아 놀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아 놀자’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양한 놀이와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 도시에서 경쟁에 지친 아이들의 숨통을 틔워 주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한 존재 인지를 몸소 느끼게 해주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농촌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함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획한 주요 사업내용은 체험 3회(그림그리기 대회 1회 포함), 생태 놀이심리치료 2회, 봉사활동 1회(플로깅은 매회 진행), 팜 파티 1회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농촌의 법칙, 숲 탐구생활, 팜 파티 3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의 법칙에서는 놀이 심리치료 및 농촌 플로깅, 숲 탐구생활에서는 리사이클 공예체험, 팜 파티에서는 농촌 풍경 그림그리기 대회와 농산물 요리 강습을 계획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이룬 성과는 첫 번째 ‘농촌의 법칙’에서는 도형심리치료를 통하여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도형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또래와 함께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협동심을 키워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농촌 플로깅을 통해서 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 및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서로 먼저 줍겠다고 놀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숲 탐구생활'은 직접 숲에 찾아가서 숲 해설을 들으며, 숲의 있는 그대로를 느껴보고 하늘보기 거울을 통해 푸른 하늘을 보는 시간으로 동심 그 자체였습니다. 숲 해설사님께 그동안 숲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보며 소통과 공감을 할 줄 아는 신선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팜 파티'는 아이들이 자연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며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학모 구성원들이 별도로 준비한 10월 대표적인 행사로 핼러윈파티를 계획하여 아이들과 차례대로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초콜릿과 사탕을 나누어 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핼러윈데이 보다 미리 진행한 행사라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참여하는 모습은 더욱 보람되었습니다.

'농촌아 놀자 - 농촌으로 놀이 찾아 떠나는 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나니 아이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직접 해보며 농촌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생활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던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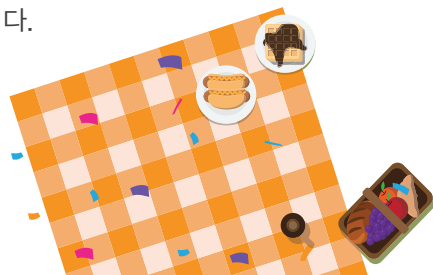
사업 진행 전에는 많은 아이들에게 농촌은 ‘재미없고 심심하다’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농촌아 놀자’ 라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곳’ 이라고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안정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효과와 인성교육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 꼭지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만족하였음에도 이번 사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와 목적에 맞게 계획한 내용들에 있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가적으로 얻은 성공도 있었습니다. ‘농촌아 놀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와 자연스럽게 함께할 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성교육에도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및 스마트폰과는 멀리하고 자연의 품속에서 안정된 정서발달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구조적이지 않은 놀이를 접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업을 진행해본 적이 없던 구성원들은 처음 진행해보는 것들이라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다행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공해 주신 정보들은 첫 사업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신학모의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진행해 보니 아이들은 즐거웠다고 하지만 농촌체험 행사만으로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 자원들을 활용하고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고,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만들어 주거나 전문 체험지도자 양성으로 흥미롭게 농촌을 느끼고 배워가는 체험 관광을 기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하는 동안 부모님들도 잠시나마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을 연계한다면 더욱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아져서 더 행복한 공주시, 공주시의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변화해 간다면 행복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행복한 도시 공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제 사랑 공주 오서

공주시 교동

공주역사문화사랑단

- 대표자명 : 김정화
- 구 성 원 : 나진숙 조선영 지윤경 안영희 정은경 양미화 이현성 김복례 김미영 조능순
- 주 소 : 충남 공주시 교동





공주역사문화사랑단은 오랫동안 공주에 살아오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으로 공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 이루어진 동아리 모임이다. 공주의 역사를 공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중함을 인식 새로운 역사학습의 범위 확대, 다양한 체험과 상품을 연구개발하고 계층 간 연대 의식과 소통으로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주민들 간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모인 단체이다.



우리의 역사는 문화와 함께 늘 살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힘 있고 아름다운 역사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 공주역사문화사랑단은 앞으로 더욱더 넓고 깊게 백제는 물론 공주 지역 역사를 통한 문화를 학습하고 체험을 개발하여 모든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공주를 체험하게 할 것이다. 지역민들의 백제 역사 및 지역의 역사와 다양하고 익숙한 지역문화를 찾아 내고 홍보하고 개발할 것이다.

“전통 문화의 계승 공주역사문화사랑단”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로 백제칠보체험은 물론 전통생활문화 교육 및 전파와 소득증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여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의 시도는 코디들의 코칭으로 좀 더 효율적이어서 즐겁게 사업을 마무리 하게 해서 좋았다. 우리 동아리가 지역 농촌 주민들과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 호흡할 수 있었고 즐겁게 여운을 남기게 됨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 감사한다.~~^^ 또한 전통 문화 체험과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확대는 주민 간의 감성 소통 활성화 확대로 활기찬 생활이 되었다.



앞으로 공주역사문화사랑단은 ‘공주사랑 백제 속으로’ 및 전년도에 이어지는 ‘걸어서 백제 속으로’ 체험 코스가 더 활발해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백제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고 사랑하기를 확대해 갈 것이며, 역사문화 학습 현장 답사를 통하여 미지의 역사적 사실 또는 전통문화 발굴 및 스토리텔링 연구와 기록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백제 칠보 기술과 전통 문양을 발전시켜서 새롭고 창의적인 문화 창출로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개발에 노력하고 싶다.

“전통공예 칠보의 美”





색동 품은 유구

공주시 우성면

금강달빛문화창작소

- 대표자명 : 노영란
- 구 성 원 : 최금옥 황인영 이은하 이지은 인은지
- 주 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금강달빛문화창작소는 각각의 공예와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주지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공주박물관과 서울의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하여 관장님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와 미팅을 하고 각 박물관 및 뮤지엄숍을 답사하면서 박물관만의 특징을 살린 문화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화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지역내·외의 박물관을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고자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액션 그룹 회원들은 수차례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콜라보하여 작품을 만들어 상품화 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임의 단체 ‘금강달빛 문화창작소’가 탄생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전통 색상인 색동을 콘텐츠로 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수국정원 관광객들이 색동을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색동 공예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해설사를 통하여 섬유의 고장 유구의 역사와 주변의 이야기를 모아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유구만의 색동 한상차림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색동’ 국수그릇, 찬기, 수저 세트, 면기 받침, 옷칠쟁반 등으로 구성하여 오색국수를 담을 수 있는 색동 한상차림입니다. 시식도 할 수 있도록 유구 지역 국수집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디자인에 필요한 스토리텔링 수업, 디자인프로그램 수업, 제품을 제작하고 제품 사진을 촬영하여 편집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수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박물관 답사를 통해서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안목을 높이고 우리 액션그룹만



의 특색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문화 상품을 보면서 패키지 디자인을 보완하고,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장조사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 금강달빛문화창작소만의 상품개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구라는 지역에 대해 모르던 부분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구의 마을기업 및 주민들과 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인 공예 관련 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예기술과 재료를 콜라보로 더 좋은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유통을 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공예품의 기획, 디자인, 제작, 상품 패키지 구성, 홍보, 유통을 구축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개인의 이익과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아이디어로 만든 디자인”



향후 금강달빛문화창작소는 각각의 박물관들을 답사하고 그 박물관에 맞는 다른 문화 상품과의 차별화를 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박물관 뮤지엄숍과의 협의 통해 입점을 하고자 하며 개발한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지정하여 우리 고유의 상품으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다하지 못한 역량강화 수업을 보강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자문을 받고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백제를 기반으로 한 시제품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박물관과 협의를 통해 판매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가격대의 금속, 도자, 목칠, 섬유, 가죽, 완구 등을 제작하여 홍보 및 납품을 하고자 합니다.

금강달빛문화창작소 BI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 포장에 활용함으로써 상품의 질을 돋보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강달빛문화창작소 구성원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품 판매와 체험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당장의 수익 활용으로 이용하고 우리가 꿈꾸는 공주를 대표하는 백제 문화콘텐츠 상품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공주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유익한 공예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윤택한 문화 생활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를 업으로 하는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홍보와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꽃피는 농촌문화

공주시 증동

도시텃밭연구소

- 대표자명 : 이경숙
- 구 성 원 : 신상국 황진웅 이영희 안영민
- 주 소 : 충남 공주시 증동



도시텃밭연구소는 7년 전에 설립하여 그동안 공주시 옥룡동 대추골 일원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마을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지역민과의 어울림 공방을 운영하던 중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해 보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기존 갖추어진 시설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모습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아갈 계획입니다. 2023년도 사업은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수익형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법인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웃음과 행복을 만끽”

함께하면서 좀 더 크고 구체화된 사업이 계획되어지고, 나눔의 행복지수도 높아지며 계획된 목표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 행사를 통해 구성원 간의 유대가 돈독해지고 웃음과 행복을 만끽하였습니다. 사업이 요구하는 방향성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으며, 적은 예산으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 사업실행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션그룹 간의 상호교류가 아쉬웠고 핵심 멤버들의 활동이 순수봉사 쪽으로만 운영되어지는 구조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만나면 좋은친구 공주시 도시텃밭연구소”

도시텃밭연구소는 치유농장에서 행해지는
치유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과 우리
구성원들의 보람을 잘 조화시키고 법인체
의 수익도 창출하는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중심 모델로 성장하여 주변 그룹 간 그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엔 함께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인구 15만의 공주를 기대합니다.

“주민공동체, 그리고 치유농업”





다양한 국화 재배 기술 습득하여 국화 전문가 되어보기

공주시 교동



리사 그리너리

- 대표자명 : 조금이
- 구 성 원 : 신현기 윤군중 안금숙 류현미
- 주 소 : 충남 공주시 교동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우리 리사 그리너리에게는 대비와 같은 지원사업이었다.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국화 재배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국화전시회와 함께 무령왕릉이나 공산성을 오고 가는 관광객들에게 국화와 원예 작물을 판매함으로써 공주의 관광, 역사, 문화, 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하고 싶었던 열망이 리사 그리너리를 탄생시켰다.

리사 그리너리는 잘 갖춰진 콘텐츠를 갖고 시작하였다. 우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차 연도에는 액션그룹 회원 중 1명이 국화 재배 기술을 습득하여 품질 좋은 국화를 재배하고, 2023년 2차 연도에는 나머지 회원들이 국화 재배 기술 및 각종 원예기술을 습득하여 치유 정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화 재배 기술 등을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보급하여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차 연도에는 치유정원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유리 온실을 만들어 각종 원예 품종을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다면 치유정원 및 가드닝(정원 활동)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11월 국화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1년의 사업이 종료되었다. 우리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봄부터 가을까지의 사업이라 한 과정, 한 과정이 새롭고 사랑스러운 작업이었다. 우리 액션그룹은 국화 재배에 관련된 콘텐츠는 잘 갖추어졌고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시회 장소가 많았던 점도 좋았다. 전시회 공간에도 관광객들이 많아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왕릉 관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시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 생각된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국화 재배 기술을 배우고 공동체 보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 끊임없는 설명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점이다. 또한 국화는 3월부터 준비해야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집행이 늦어져서 삼목 및 묘목을 구하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 그 외에 기타 경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적은 사업비로 액션그룹 회원들의 수고가 많았던 한 해였다.



이제는 먹고 입는 것에서 관상을 즐기는 시대가 온 것이다. 공주시의 이와 관련된 각 부처 간에 협업체제가 구축된다면 액션그룹 회원은 국화 재배 기술을 습득하고 국화 보급 및 판매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작은 국화 꽃잎은 건조하여 침출차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2022년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으로 국화 재배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 위주의 재배 교육을 하였다. 2023년에는 치유정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고 국화 재배 기술을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교육하여 치유정원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한다면 공익적인 효과로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예나 국화 재배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우리 리사 그리너리의 2023년도 교육 프로그램 활동부터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농촌활력을 꿈꾸는 교육 연극 - 우리 모두 문화예술 창작자 -

공주시 정안면

마을에서 행복 찾는 사람들

- 대표자명 : 신항섭
- 구 성 원 : 박현희 오은진 임선에 이은덕
- 주 소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마을에서 행복 찾는 사람들은 구성원 모두 2021년 충남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이짜워며 3. 어쩌다 중년, 예술로 통하자] 프로그램에 기획자, 강사, 참여자로 함께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로 'EBS 생방송 일단해봐요 오후1시(2021.10.5.)' 프로그램의 사례 발표자로 출연, 2021 충남문화예술 교육 박람회 씨앗 페스티벌(2021.12.11.)에서 농촌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함께 하는 세상' 연극을 공연하였으며 제67회 백제문화제 실경공연 '공산성 달 밝은 밤'(2021. 9.30.~10.2)에서 시민배우로 참여하였다. 이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농촌에서 폭넓게 함께 나누길 고대하고 계획하였다. 즉, 문화예술 접근이 어려운 농촌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은 물론, 수혜자들 스스로 문화예술 창작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20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로, '연극지도자 1급', '영어문화예술공연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육기관으로써의 기초를 마련하고, 조합 설립을 목표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우리는 그동안의 역량을 실현시키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 '강아지똥', 고학년 프로그램 '홍길동전'을 개발하고 실제로 초등학교에 8회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인 학생과 교사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셋째로, 마을에서 행복 찾는 사람들이 기획한 충남문화재단의 지역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나의 생애 기록과 낭독', '애창곡과 함께하는 낭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소소한 행복의 시작”



이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 중 한 꼭지인 공연 관람은 생애 최초 뮤지컬과 연극공연 관람이었다고 토로 하는 등 좋은 경험을 안겼다. 더군다나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직접 만들고 무대에 올려 낭독, 노래, 춤, 장면 연출 등의 기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 영향으로 지역민 스스로의 자조모임 '정안면 플러스 연구소'를 열 수 있었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스스로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귀산초등학교, 석송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시연 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안면과 옥룡동에서 지역민과 시민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왔다. 문화예술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이 과정은 참여자들 모두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문화예술 소외 지역민들이 조금 더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문화예술을 누구나 즐기고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023년에는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노년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싶다.





놀이를 통한 정원문화 프로그램 시즌 1

-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정원문화 활성화 -



공주시 계룡면

공주시정원문화연구소

- 대표자명 : 박혜리
- 구 성 원 : 염문선 이현승 임 호 편옥희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흙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놀이정원사 양성 과정 및 놀이정원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마쳤고, 우리 지역 민·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놀이정원 프로그램 활동을 지역 안에서 펼치고자 한다. 공주시만의 역사 문화와 예술문화 계승으로 정원놀이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학습하는 교육 공동체로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익히고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공동체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해 소통과 협력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 첫발로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은 단체가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우리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 및 환경 친화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시작점이다.

공주시정원문화연구소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연구·학습회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공적가치 활동 및 현장형 마을 교육활동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정원놀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새롭게 확장되고, 더불어 마을의 변화를 만드는 생활 속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정원놀이를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의 놀이터가 정원이 되고, 정원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식물·생태·환경·나눔 활동으로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정원놀이 활성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주 1회(월 4회) 정기모임과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만남으로써 공동체성을 향상시켜 주었고,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202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마중물이 되었다. 두 번째, 본 연구소의 대표와 회원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계 협력하고 있다. 202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교육 봉사활동으로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를 함께 하였으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친구들이 활동한 작품 전시회를 통해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다. 활동한 작품들을 다양한 영역으로 모아서 전시와 동영상 감상할 때 뜨거운 눈물을 보인 친구들이 있어서 활동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 활동을 하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정원놀이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보람 하나로 치유되고 또 한 번 일어설 힘이 된다. 세 번째, 백제문화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원 활동 전시회, 행복한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이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 후 공주시정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공동체성 및 공적 가치 활동을 위한 기본, 심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신 훌륭한 분들이지만, 혼자 하는 활동을 넘어 공동체적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듣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동반성장은 매우 모범적이다. 단순 역량강화만을 통해 공공성이나 공적가치가 배제된 성장은 시야를 가리어 정도를 가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학습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토론회, 포럼 등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공주시정원문화연구소는 연구학습회,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공론장 운영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정원문화 프로그램, 시니어 대상 정원 문화 프로그램, 액션그룹과 연계·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공주시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 및 예술문화 융합을 위한 연구 학습회, 연구소 자체 활동을 위한 지역 사회 연계 등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공주시정원문화연구소는 지역 생산품 및 식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 훌륭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성원이 각 지역의 거점 역할, 지역장이 되어 정원문화 활성화 및 건강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우리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 및 환경 친화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나(I)를 위한 환경 살림 - 우리들의 나비효과

공주시 증동



고마무지개

- 대표자명 : 고명애
- 구 성 원 : 이해정 이종태 이선희 박상용
- 주 소 : 충남 공주시 증동





우리는 일상 속 수많은 행동들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활동 중에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쓰레기 태우는 게 그렇게 안 좋을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거라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느라 쓰레기를 죄다 모아서 태운 거라고... 진짜 알았다면 안 태웠을 거라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그렇게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몰라서 했던 일들이 많았다고 알면서도 못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다고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아직도 누군가는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고 한다. 그러나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 변화하고 있음을 이 사업을 통해 느꼈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와유”

얼마 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활동 사례 발표와 전시 자리에 함께 간 학부모 한 분이 “예전에 입던 옷인데 이젠 이런 옷도 못 입겠어요. 환경활동하는 사람이 이런 옷 입는다고 흉볼 것 같고 사람들 시선이 신경쓰여요. 가죽 가방 드는 것도 이전 영 불편 해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며 입고 있던 가죽코트를 벗어 놓으셨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그보다 앞서 내가 나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고 때로는 유난스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더러는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몸이 편한 쪽을 택하기도 한다.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젠 그분도 나도 알지 못해서 좋아하게 되는 물건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다.

환경에 해를 끼치며 만들어지는 물건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더 이상 구입하지 않으려 애쓰며, 환경에 이로운 것들을 찾게 되고 물질적 소유욕을 경계하게 된 마음의 변화만큼은 우리 서로 격려해 주고 싶고 감사하고 싶다.

한 명의 완전한 채식주의자보다는 열 명의 불완전한 채식주의자가 환경에 더 이롭다는 말에 내가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일관되게 반환경적인 사람보다는 일관되게 비친환경적인 사람이 낫다는 야생 학자 김성하 선생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반환경적이더라도 일관되지 않더라도 환경을 위해 조금이라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모이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내가 그러했듯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환경관에 영향을 끼치고 함께 변화하고 실천해가며 동참하고 친환경적인 삶으로 물들어가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적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도 아니었는데 전기를 절약해야 하고 물을 아껴야 한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면 일일이 잠그고 다녔고, 안 쓰는 전기코드는 모두 빼놓고 다녀서 번거롭게 한다고 많이 구박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냥 흐르는 물이 아까웠고 새는 전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 정도였다. 지구 생태계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 그저 살아가기 바쁜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있는 쓰레기 섬을 보게 되고 뱃속



이 쓰레기로 가득 차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게 된 이후 지구 어느 한쪽에선 마을이, 국가가 물에 잠기고 굶주리고 있는 이들과 환경난민이 생겨나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던 것 같다. 몰랐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되는 대로 환경 관련 교육을 들었고 사람들과 함께 캠페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 환경활동가로 단체를 만들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도 지원하게 됐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며 따라오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조금이나마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단순히 환경 지식을 전달하는 단체가 아닌 'EM' 처럼 쓰면 쓸수록 유용한 것들에 대한 안내도 꾸준히 할 것이며 마을 환경을 위해 더 이상 왜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되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알릴 것이고 '세상 살기 좋아졌다, 편해졌다' 고 한 그 시간만큼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고통 받은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위기를 계속 알릴 것이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고 배워갈 것이다.

사람이 자연 안에서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공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각의 색깔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지구에 무해한 환경을 위해 함께 실천하고, 무지개가 뜨는 아름다운 금강 공주를 만들어가자고 만든 고마무지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올 한 해 많은 분들과 함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기에 참으로 뿌듯하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산품을 이용하고 채식 을 지향하는 일, 궁극적으로 탄소배출까지 줄이는 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구에 무해한 행동들을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 나가는 고마 무지개의 모습을 그려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모두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무지개빛으로 빛나는 사람들”



농촌 갈등 이음 사업

공주시 반죽동

자리이타

- 대표자명 : 류인호
- 구 성 원 : 김호섭 최영림 김규현 이찬호
- 주 소 : 충남 공주시 반죽동





서로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들끼리 자주 만나는 과정에서 좀 더 공주 발전을 위한 방법이 어떠한 게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서로 가진 장점들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논의가 시작됐고 주변의 조언과 경험담 등을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리이타’가 추진하는 사업은 공주시 문화예술 기획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별성을 두고 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의 모범 사례로 본보기가 되어 공주시의 모범사례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갈등은 열린 마음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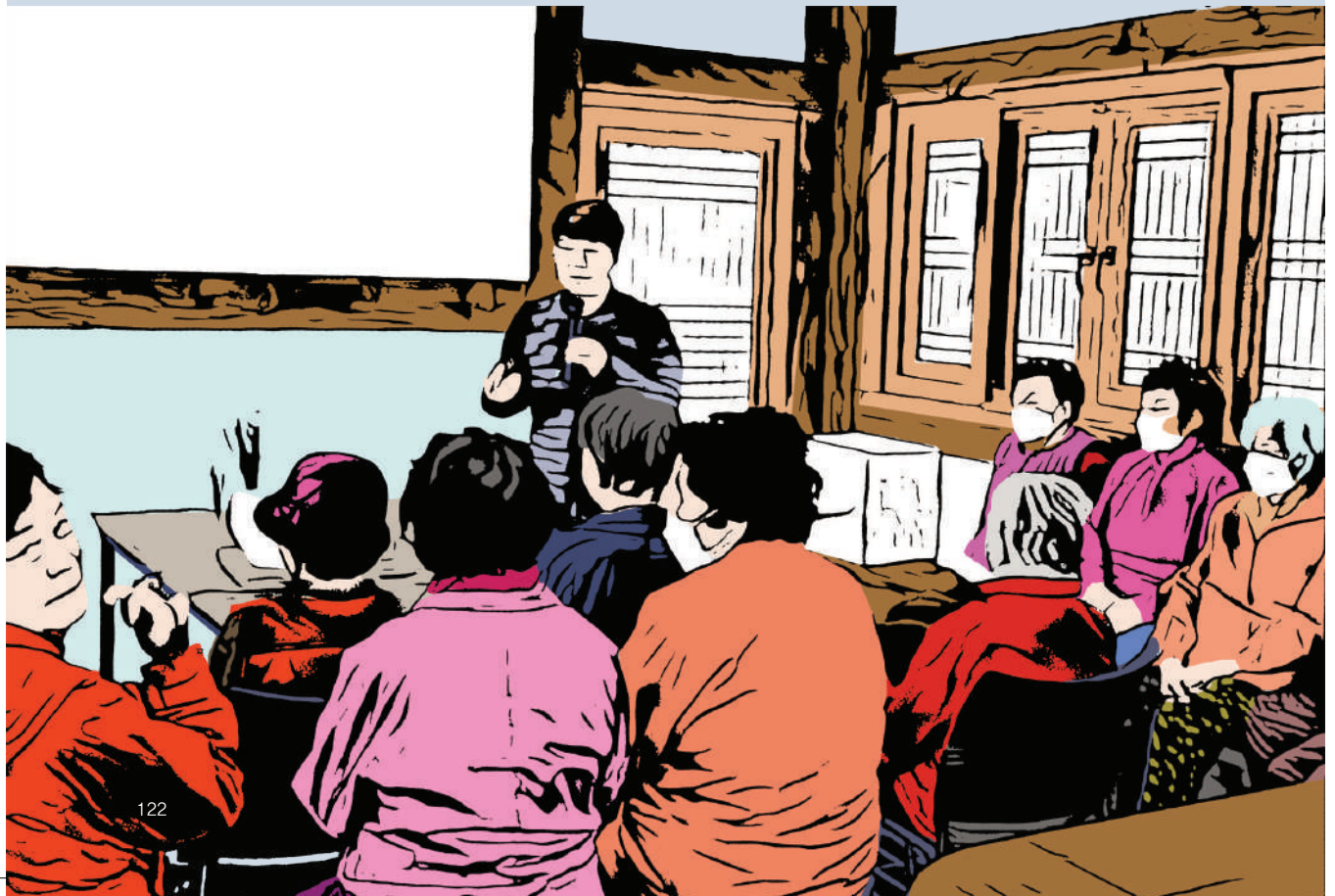


그동안 저희 ‘자리이타’ 구성원들조차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 했던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의 특성과 장점을 통해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처음 도전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협동하며 협심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딱히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만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접해봤고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담 코디분들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사전교육이 좀 더 디테일하게 몇 차례 이뤄진다면 많은움이 될 것 같습니다^^;

'e-나라도움'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액션 그룹들 간의 소통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그야말로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 액션그룹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모범 사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시 또한 문화도시로 더욱 발전해 있는 모습과 공동체의 활성화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모범도시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우리”



청년





신활력 보드게임 개발사업

- 청년 문화 창업자들의 연대로 공주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

공주시 의당면



고마재주꾼

- 대표자명 : 윤종화
- 구 성 원 : 심영화 박윤경 황재호 박윤미 임지은
- 주 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공주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육성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임으로 시작되어 공주시민에게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규 청년 창업자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공주시민들을 위해 평생교육원, 노인복지센터에서 문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나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관내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문화 창업자들의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알게 되어 청년 창업자 모임의 시너지를 발휘하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창업자 각자의 사업 아이템과 고유의 색깔을 그대로 가져가고 공통의 목표와 아이템을 발굴하여 구심점으로 삼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아이템도 어필하며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당초에 기획하였던 공주시 농촌의 아이템을 활용한 보드게임 개발을 잘 이루어냈고 함께 기획하고 고민하면서 창업자 간의 유대가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집행이 예상보다 늦었던 것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비교적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해 멤버들의 각자의 사업상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모든 인원이 함께 사업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만큼 모든 인원의 힘을 모을 수 없었던 점도 좀 아쉬웠고 조금 더 빠른 사업비 집행과 실제 사업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날짜를 길게 줄 수 있다면 모든 인원의 힘을 모아 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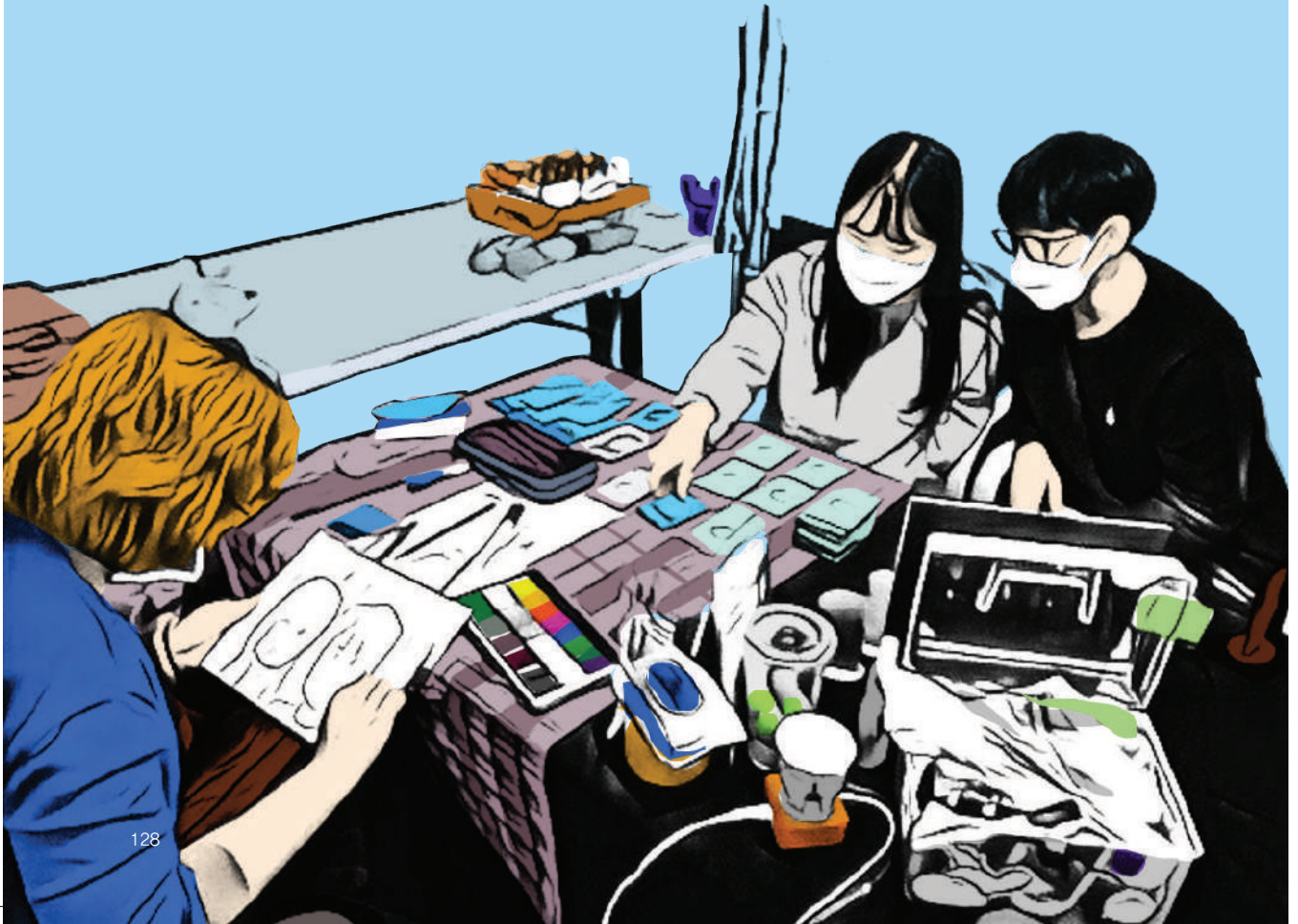


더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개발한 공동의 아이템 보드게임 'let 꼬몽' 을 앞세워서 '고마재주꾼' 의 대표 제품으로써 시연도 하고 단가를 책정하여 실제 판매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액션할 수 있는 청년 창업자를 추가 모집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의 힘을 모아 또 다른 방식의 보드게임을 하나 더 개발하여 함께 활용하거나 협의하여 신규아이템을 발굴·개발하여 '고마재주꾼' 의 지속적인 활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향후 고마재주꾼은 청년 창업자 각자의 사업 아이템도 충분히 번창하여 성공하면서도

“농산물 알리기 보드게임 개발”



우리 단체 '고마재주꾼'의 사업이 자리를 잡아 수익이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존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창업자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평범한 사업들 외에 우리 '고마재주꾼' 같은 문화 창업자들의 새롭고 활기 넘치는 활동으로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청년들도 충분히 즐기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있을 공주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유효공간 ICT 시스템 개발

— 공주를 특별하게 —

공주시 신관동

(주)공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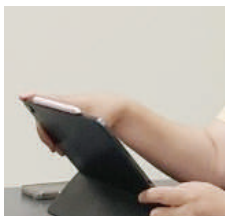
- 대표자명 : 응아름
- 구 성 원 : 송유진 나효경 지영빈 이다영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농부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며 농업을 하고 농사만 할 줄 알고 행정을 잘 모르는 농부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시골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와 지방의 정보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서 지방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온라인 시장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새벽 배송이 당연하지만 시골은 새벽 농사가 당연하고 농협이 유통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3천만원을 들여 마켓을 열지만 유동인구가 적은 시골에서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겪으며 ‘왜 시골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보다 리빙랩을 통해 직접 지역 문제를 찾아 나섰고 내가 살아가고 늙어가야 하는 곳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작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스타는 공주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리브랜딩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공주의 로컬 자원들을 리디자인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아카이빙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람만 알고 있는 공주가 아닌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공주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각현실화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상상만 하던 일을 실현하게 되었고 추진단 연구원님과 코디네이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조금 사업집행 뿐만 아니라 e-나라도움을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도움받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갖고 있던 것을 사업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2022년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차년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수제처럼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소개가 더 공개적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서나 협약서 같이 지금 어떤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더 공신력이 있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협조나 협력을 더욱 활발히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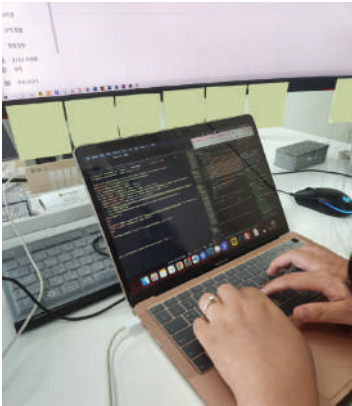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서 농민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서 농촌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려

“플랫폼 구축 작업으로 밤새는 줄 모르고”



왔고, 신뢰를 쌓기가 어려웠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려 이해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마을에 청년들이 와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묻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내년에는 타인의 기여도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스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과 협의하고 이야기 나눠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연결 고리의 역할을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도·농복합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다양성이 확보된 도시, 현대사회에 맞게 생존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공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담은 소통과 공유의 로컬 브랜드 창고(모델) 개발 - 청년 지역농가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공주시 산성동



공주시청년보부상협동조합

- 대표자명 : 박종민
- 구 성 원 : 박명훈 권두연 배일성 이종진
- 주 소 : 충남 공주시 산성동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모임을 진행하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 고민하고 진지한 대화들을 나누며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던 중 지역 농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지역 농가 대부분이 고령화되어가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들과 함께하는 지역농가 발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지역의 좋은 농산물들과 발전 가능한 농가를 발굴하여 젊은 청년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로 확장해 보고 싶다. 지역에 수많은 특산물을 비롯한 로컬 제품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농산물 물류 창고들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한계에서 한 개의 제품이라도 한 농가라도 제대로 알리고 그것을 통해 지역 상생을 이루었으면 한다. 또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부분부터 지역농가와 발맞춰 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아직 우리들의 힘이 미약하고 크게 성과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가 한 곳을 발굴하여 유통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과 디자인을 도와준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발굴과 지표 개발하는 사업도 중요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청년보부상이 성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농가와 우리 팀과의 시간 조정과 기타 진행과정에서 농가가 원하는 부분과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조율해 가는 과정이 어려웠던 것 같다.

1단계 알아가는 과정들을 진행할 때는 무엇이든 기초단계에서 끝나야 했던 아쉬움과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 못한 점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농가를 발굴할 때는 단순히 제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진지한 고민과 현실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절충안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어려웠다.

“지역의 보물찾기에 나선 사람들”



농가 발굴 부분이 1단계라면 2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를 내어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농가 발굴의 모델화를 만들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농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싶다.

공주는 보물지도와 같은 곳이다. 다만 그 보물들이 무엇이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적다. 무수히 많은 가능성과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겨진 보물처럼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나 액션그룹들이 하나 둘 잘 발굴해 내어 우리의 보물로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아내는 중심에 청년보부상이 우뚝 서 있을 것이다.





토종 곡물 제품개발로 지속가능 농가수의 창출

공주시 봉황동

(주)어콜렉티브그레인 농업회사법인

- 대표자명 : 김현정
- 구 성 원 : 조상희 강우찬 이병렬 천재박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안녕하세요,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로컬액션그룹(LAG) 1기로 참여하고 있는 어컬렉티브(곡물집集)입니다. 2022년 주민생각현실화 지원사업 중 주민활력 + 수익형 분야에 「토종 곡물 커피백(에어룸 그레인 커피) 신제품 개발 및 식경험 커뮤니티 구축」을 주제로 한 사업을 신청하여 지난해 3월부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컬렉티브는 토종 로컬푸드 제품 및 콘텐츠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지역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는 만큼 자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커피 원두와 토종 곡물(콩, 팥, 밀, 수수 등)과의 완성도 높은 조합을 발견하여 ‘토종 곡물 커피백’ 제품으로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품화 단계에서 토종 곡물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탐구하는 ‘식(食)경험 디자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고객을 위한 공유가치(CSV)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토종 곡물 고유한 맛과 향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제품화하고 식경험 커뮤니티를 동반한 브랜딩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곡물 커피 시장에 대한 주도권(이니셔티브)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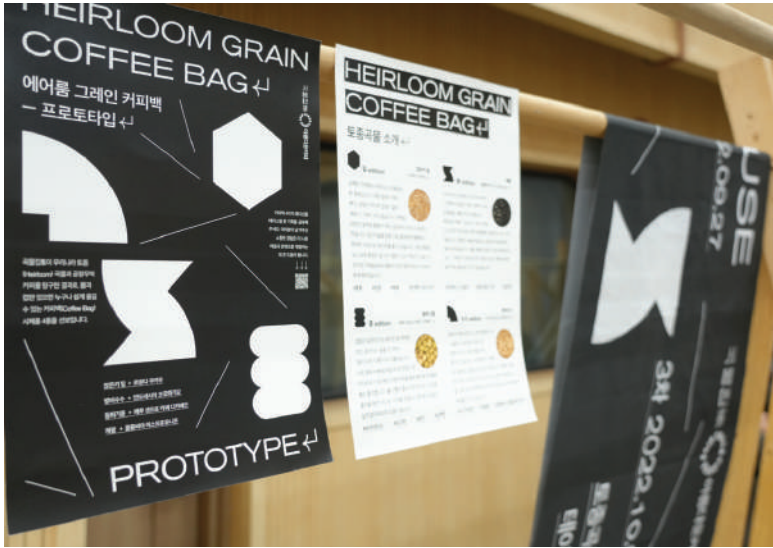
작년 3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3번의 자체 테스트를 거쳐 원두와 토종 곡물 원재료의 블렌딩 조합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커피’의 공정무역 싱글오리진 원두 4종을 최종 선정하여 제작 파트너로서 협업하였습니다. 선별한 토종 곡물과 원두의 비율, 레시피도 연구 개발 끝에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으로 상품의 매력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에어룸 그레인 커피백 - 프로토타입’ 제품으로 토종 곡물과 공정무역 커피 원두의 조합을 경험하는 테이스팅 커뮤니티 프로그램 《그레인 커피하우스 Grain Coffee House》를 운영했습니다. 곡물집이 아름다운커피와 협업하여 큐레이션한 토종 곡물 4종과 공정무역 커피 원두 4종을 오감으로 느껴보고 나의 취향에 맞는 조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커피 4종의 첫인상, 향, 질감, 맛 등을 직접 체험하며 테이스팅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커피백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했고, 커피 소비 문화 패러다임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남권 및 공주시내 커피 및 F&B 업계 관계자, 로컬 크리에이터, 대학생, 농부, 프린랜서, 일반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 16명 의견(VoC)을 수집했습니다.

소규모 참여 프로그램 성격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프로그램 후기 콘텐츠와 수집한 포커스그룹인터뷰 데이터를 아카이브한 온라인 블로그 콘텐츠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을 정리한 인쇄물을 제작하여 상시 비치하고 방문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곡물집에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전국의 도시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본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공주지역 외 기타 지역에 본 인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타 지역에서 공주 지역의 식(食)경험 프로그램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곡물집集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제작한 결과물인 ‘에어룸 그레인 커피백’은 2023년 상반기 정식 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사업에 참여한 로컬액션그룹 1기,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Market to Table (오거리시장에서 커뮤니티 식탁으로)

- 이왕 밥 먹을꺼 같이 먹어보는 건 어때? -

공주시 중학동



컴바인랩

- 대표자명 : 박진서
- 구 성 원 : 김민지 허미정 김용환 진예은
- 주 소 : 충남 공주시 중학동





첫 모임의 시작은 포트력으로 진행한 일요일 조찬 모임이었어요. 공주에 사는 이주 청년들끼리 각자 음식을 가지고 모여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을 함께 보냈어요. 일요일이라 밖은 조용하고 모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사람들도 모두 여유로웠어요. 그때의 분위기, 공기, 음식, 이야기로 가득 찬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힐링이었고,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더라구요. 그 후로도 조찬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각자 들고오는 음식이 다 평범하지 않더라구요. 나에게서는 자주 먹던 음식이 남에게는 특별한 음식이 되곤 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상대에게는 평범하지만 나에게서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 만나는 사람들과 자주 모이는 곳에서 음식 하나로 신선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콘셉트의 식사 모임도 운영해보았어요. 공주를 경험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공주자원소인 '김피탕'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임을 진행했어요. 그들에게는 김피탕이 흔한 음식은 아니니까요. 김피탕을 먹으며 또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게 좋았어요. 모두가 바쁜 와중에도 각자 밥 먹을 때 함께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구요. 굳이 짬을 내어 만나지 않고, 원래 다들 하는 걸 함께 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종종 모임을 운영하다가 커뮤니티 식탁이라는 운영체제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 '장소', '음식'을 색다르게 만들어보면 더욱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공주에 사니까 공주 지역의 콘텐츠를 한번 커뮤니티 식탁에 녹여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역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보니 장날이면 펼쳐지는 집 앞 시장이 눈에 보이더라구요. 왜 이 곳에 상인들이 몇 분 나와서 장사를 하고 계실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공주 주민분들과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 곳에 열리는 시장이 예전에 하숙시장이라고 불렸고 엄청 큰 시장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줄어들었지? 그리고 산성시장이 있는데 과거에 시장이 왜 크게 섰을까? 현재 남아있는 상인 분들과 몇몇 가게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등 그 때 그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시장 상인과 오거리 시장에 추억을 가지고 계신 주민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예전부터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꼭 들리던 '동네시장', 그 시장의 정서가 저는 좋거든요. 저도 어릴 때 엄마손 붙잡고 매주 가던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길을 걸으며 야채와 채소를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고, 엄마가 사주던 길거리 도너츠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이 시장 또한 누군

가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이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무궁 무진하겠구나 해서 그 이야기를 식탁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Market to Table 사업을 시작하게 된거죠.

Market to Table(오거리시장에서 커뮤니티 식탁) 사업은 오거리시장의 이야기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먹는 모임입니다. 오거리 시장을 알고 있는 지역주민분들, 택시 기사님, 시장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시장의 이야기를 모았고, 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를 골라 보았어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했는데, 그 요리는 공주에서 맛보기 힘든 요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콘셉트는 멕시코 요리였어요. 제가 멕시코 요리 전문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멕시코 요리를 좋아했어요. 근데 공주에는 멕시코를 하는 곳이 잘 없더라구요. 멕시코 요리를 접해본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의외로 멕시코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요리를 개발하고 교육해주신 선생님은 공주에 여행을 왔다가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우연히 알게 된 분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멕시코에서 살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고, 식당도 운영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의 니즈와 너무나도 잘 맞았어요. 그렇게 멕시코 요리 레시피를 전수받아 커뮤니티 식탁을 운영했습니다. 총 5회를 진행했고, 회차당 5-6인 정도로 진행했어요. 매회 공주 지역의 공간들을 활용하여 진행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뮤니티 식탁을 운영하며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달라지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커뮤니티 식탁을 하는 보람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커뮤니티 식탁은 이름은 유지한 채 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식탁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주 청년들과의 포트락 모임, 두 번째는 방문객과 김피탕, 세 번째는 시장의 이야기를 식탁으로 가져왔다면 그 다음에는 농업과 연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주 지역민들과 지역에 함께 살곤 있지만 왕래가 없었던 사람들과의 첫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모임 외부인과 지역민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모임으로 자리하고 싶어요. 또한 지금까지는 커뮤니티 식탁 진행을 보조금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커뮤니티 식탁을 유료화하여 자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오거리시장)를 커뮤니티 식탁을 통해 알림으로써 지역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식자재 자료를 활용한 외국요리 개발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였습니다. 공주 내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커뮤니티 식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여 농촌과 도시의 연결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커뮤니티 식탁에 참여한 분께서 요리 케터링을 요청하여 공주시 청년센터에서 진행되는 청년 정책 활성화 축제에 케터링을 진행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맛보는 기회, 지역문화와 식재료를 알리게 되는 계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 먹고 이야기하는 자리인 커뮤니티 식탁을 운영하며 음식 케터링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개발한 요리로 케터링을 하게 되는 파급효과를 앞으로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e-나라도움을 사용한다는 점이 상당히 번거로웠어요. 한번 해보면 어렵지는 않았지만 바로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를 하면 될 것을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불필요한 행정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카드를 만들 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만들었어요. 신용카드는 카드로 결제를 먼저 하고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됐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여 그걸 통장으로 이체하고 카드를 결제를 하고 또 다시 내역을 등록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어요. 슈퍼에 가서 제가 얼마를 쓸지 1원 단위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또한 농촌신활력이라 농촌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의 커뮤니티를 잘 알다보니 도심에서 진행되는 것이 더 편했을까요? 또한 농업과 농촌의 차이 구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난감했습니다. 저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했었는데 갑자기 농촌에서 무엇을 하라하셔서 당황했지만 농촌에서 커뮤니티 식탁을 한번 진행할 방법을 고안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농촌’ 바이브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농촌과의 연결을 짓기 위한 무언가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촌’과의 연결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 농촌과 도시의 인적자원의 연결, 콘텐츠 퀄리티를 높여 농촌에서 진행해보는 것을 위주로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이라는 공간적인 힘이 커뮤니티 식탁에 큰 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가끔 고요한 농촌에서 힐링하고 싶을 거거든요. 이 수요를 공략한 커뮤니티 식탁을 차려보고 싶습니다. 또한,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을 공주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CSA와 연계하여 커뮤니티 식탁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컴바인랩이 바라는 공주의 모습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주에 유입이 되어 공주시의 매력을 외부인들이 많이 알면 좋겠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주는 찾아보면 자원이 많은데 그걸 아직 잘 가꾸는 사람이 적은 느낌입니다. 즉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지역의 색을 잃지 않은 채 사업의 퀄리티를 높여가다보면 분명 ‘공주스럽다’라는 마음이 생겨나 도·농복합도시로 도농간의 교류가 원활하고 서로 돕고 재미난 일들을 마구마구 벌리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홍보 유통 마케팅





농촌활력+사업(수익형)

담쟁이는 오르고 또 오른다.
그것이 절벽이라 해도 서로가 손을 잡고 기어코 오른다.

공주시 계룡면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

- 대표자명 : 최영란
- 구 성 원 : 조민형 강창미 정신영 양우연 신희성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공주시 신활력”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외지에서 이곳 계룡산자락 인근의 계룡면으로 이사와 정착하여 각기 다른 사연으로 농촌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산물의 원물은 물론 이를 이용한 가공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의기투합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 계룡면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환원하며 누구든지 공주시 계룡면에 오면 여러 가지 체험과 전통방식 그리고 농촌의 정취를 흠뻑 느끼고 갈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전통음식 관련 강좌를 함께 수강하며 각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은 계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계룡산이 지닌 유·무형의 자산을 함께 발굴 및 상품화하는 일을 협업하여 농촌 관련 다양한 제품 개발과 상품의 출시를 통해 다함께 소득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룡면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주시를 방문한 관광객과 공주지역 시민들이 공주 관광지역을 방문 특히 계룡면에 왔을 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같은 여러 가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을 구상 및 개발하여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계룡산담쟁이 축제추진단이 되고자 합니다.

전통음식의 하나인 발효를 통해 막걸리를 만들고 막걸리라는 기본 위에 식초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 수강하고 실습하여 직접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제일 흥미로웠으며 이를 통해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한 농·임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을 만들어 이를 홍보 판매하는 체험은 개개인에게 큰 자산으로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 오디를 활용한 약주 면허, 탁주 면허, 오디와인 면허까지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취득한 면허로 식품안전나라에 품목제조보고하여 판매상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될 수 있어 가장 보람을 느꼈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더 강화되어 가장 좋았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질적 지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업관련 가장 힘든 부분은 보조금 관련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사용하다 보니 많은 실수가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정산 및 보조금 사용 관련 자료 제출이 조금 간소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실질적 자산이 되고, 이를 마중물 삼아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취득도 가능한 보조 사업이 생겼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노력의 결실들”



2022년을 뒤돌아보면 여러 프리마켓, 성과보고회를 다녀보았지만 아직도 공주시는 스마트한 사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계룡산담쟁이축제 추진단 구성원들은 개인 각자의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독창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은 다가오는 2023년엔 프리마켓 판매대(차량 픽업)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판매 사업을 통해 수강한 내용이 아깝지 않게 전통음식을 만들어 공주시 향토음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룡산·갑사를 연결하는 BRT 교통 노선이 구축되면 환경부가 설계중인 친환경 야영장, 힐링센터의 준공으로 세종시 많은 수의 관광객과 공주시민들이 공주의 명산인 계룡산을 방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은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전통 발효 음식문화가 접목된 문화 장터가 계룡산 자락에 상설 운영될 거라 생각하며 그때까지 우리 구성원 모두는 많은 역량 강화를 통해 여러 가지 판매제품의 다양화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역 최고의 단체가 되어 문화 장터의 리더로서 지역을 선도하며 봉사도 하면서 계속 발전되는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토론과 열변의 시간”





GOMA with YOU 농업·농촌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오프라인 판촉

- 고집 있는 농원의 대표들과 함께합니다 -

공주시 반죽동



고마와유협동조합

- 대표자명 : 이현서
- 구 성 원 : 현종민 이승찬 강은진 최슬기
- 주 소 : 충남 공주시 반죽동



“농가의 고민해결 고마와유”

대다수의 농가들이 자신들이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 판매처를 고민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스스로 홍보 방법을 찾는 것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상품 홍보 마케팅

농가와 상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판매와 방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연계하여 농가와 상품을 알리는 사업이며 경쟁력 있는 공주의 많은 농가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마와유협동조합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진행에 긴장감을 줄 수 있지만 지자체 사업에 공모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보다 농가가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농번기와 겹치면 생업이 우선인 농가와의 촬영, 미팅, 진행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전체적인 스케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사업에 대해 농가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업 진행 시기를 조율해주시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촬영, 미팅, 진행하는 전략



고 마 와 유

고마와유협동조합은 향후 농가와 함께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며, 상품성을 키워 마음으로 함께하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코디네이터
추진위원·사무국

농산물가공

농촌생활문화관광

청
년

홍보유통마케팅



147밤의 길목에서

공주시 중동



공주상인 협동조합

- 대표자명 : 노재관
- 구 성 원 : 안도성 김형익 이병래 이희산 신은미 천진국
- 주 소 : 충남 공주시 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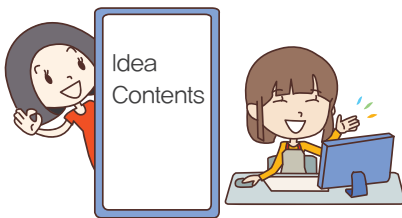


공주상인 협동조합은 중등 먹자골목을 시작으로 공산성 인근의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비록 이종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개인 사업가들로 조합원 각자의 잠재된 기술력과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여 작게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주의 특산품인 공주 밤을 알리고자 하는 이유로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중등 먹자골목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구성원의 기점인 기존 공주 먹자골목 상권에서 지역 특산물인 군밤 판매를 시작으로 밤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회의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밤 관련 특화제품 유통과 입점을 유도하고 낙후되어가는 공주의 강남 상권 및 먹자골목에 공주 알밤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치하며 공주시민과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구도심을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소득 증대를 이루는 지역특산품 알밤”



공주 지역특산품인 밤을 구매하고 군밤 만드는 기계를 임대하여 공주시에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홍보용 밤을 나누어 주며 공주 밤의 맛과 효능, 제품 및 종류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공주 밤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지역 판매업체를 소개하여 밤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도와주었고 밤 농가로

부터 도움이 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 매우 뿌듯했습니다. 비록 미약한 홍보와 전략이었지만 군밤 마차를 운영하며 공주 밤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밤을 2차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고 공주 특산물 소비 증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디님과 의 정기적인 소통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는 코디님으로부터 전달된 사항을 액션그룹에 바로 방문하여 해결해 주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생소하게 사용해야 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과 정산 서류 작성과 활동할 때 찍어야 하는 사진이나 증빙서류를 챙기는데 다소 힘들기는 하였습니다.



정산 시 좀 더 간편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생각과 변함없이 밤을 활용한 특화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이제는 판매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중동 먹자골목 공실을 임대하여 특화제품 판매와 사업 초기 목표처럼 중동 먹자골목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관광객 유치, 공주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공주 경제를 부흥 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주, 머무르고 싶은 공주, 찾아가고 싶은 공주, 느껴보고 싶은 공주가 되기를 바라며 백제의 역사를 안고 신 물결이 넘치는 공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은 성공의 밑거름”





공주향 못난이 로컬푸드 ‘어글리청’

– 밤을 품은 포도 쌍화청 탄생 못난이여도 맛은 최고라구요! –

공주시 증동



공주향협동조합

- 대표자명 : 조천휘
- 구 성 원 : 송영옥 전금옥 박미애 이문자 조명숙
- 주 소 : 충남 공주시 증동





전혀 몰랐던 우리들은 협동조합 양성과정에서 만난 인연으로 공주만의 이야기를 담은 상품을 함께 만들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조합이었다. 오랜 기간 서로가 모든 걸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데...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만큼 시작한 협동조합에서 의견이 다를 때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나를 내려놓으니 조합원이 보이고 서로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더 확실히 보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버려지는 농산물에 대한 기사를 보던 중 '이것을 활용해서 상품화 되지 못하는 못난이 과일로 청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수익원과 수익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공주향의 사업 목표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여 청을 만들거나, 커피숍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것 쓰레기가 아닌 우리 곁에서 좀 더 오래 사용하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낭비가 없는 사업을 목표로 '재활용 제품개발' 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를 실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버려지는 농산물이 다시 청으로 만들어지고 농민은 유통의 번거로움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얻고, 조합에게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다시 개발되어 판매하다 보면 농민과 조합의 상생으로 함께 어우러질 것이다. 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조합에 이익이 늘어나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



버려지는 농산물이 우리 조합의 노력으로 어글리청으로 재탄생! 제품의 변신은 무죄인가!

프리마켓에 참여하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시음회를 하면서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어글리청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몸소 느꼈다. 특히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구매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기에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야기 하였고 그러던 중 공주의 특산물인 밤을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밤을 품은 포도 쌍화청'이 탄생하게 되었다.

당일 수확해 상품화 되지 못하는 과일들을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못난이 과일 특성상 보관의 한계로 인해 바로 청으로 담아야 한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같은 시간에 시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부분 밤늦게 모여 늦은 밤까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힘들었다. 하지만 청을 만들며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의견들로 이어졌다. 청 만들기 체험키트로도 개발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과일 특성상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화의 한계를 느껴 진행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도전을 자유롭게 교류하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못난이 로컬푸드 어글리청을 만들면서 친환경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조합원들은 자원순환 활용에 대한 고민으로 지역 내 커피숍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첨가물이 전혀 없는 순식물성 쓰레기이며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그동안은 건조해서 냉장고나 신발장, 방에 두고 탈취 제습제로 사용하고 있고 농업에서 퇴비와 방충제 등으로만 사용하였는데 그 커피박을 활용해 조합에서 공동 사업으로 커피연필, 커피화분, 커피공예를 하고 싶다. 특히 커피점토는 화학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피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가 심한 어린아이들도 손에 쥐면 놀 수 있는 인체 무해한 커피점토인 것이다. 커피박으로 개발된 이 모든 것들은 사용하고 버리게 될 때 땅에 묻으면 100% 퇴비가 되는 자연 순환자원이다.

공주향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재활용 아이템은 윤리적 소비를 넘어 환경적인 소비와 삶을 실천하고 한 명의 완벽함 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작은 지향이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본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협동조합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협동조합은 끊임 없이 공부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 조합 내에서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현명한 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라 본다. 좋은 생각을 가진 조합원의 확대로 구성원들의 행복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하면서 함께 성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공주향의 로컬브랜드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지역콘텐츠를 활용한 우수상품으로 개발되어 공주 지역에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매텃밭 무인 가판대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마을회

- 대표자명 : 노홍중
- 구 성 원 : 임일란 정종현 최동규 서영희 신현직
- 주 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마을회는 할매텃밭 무인가판대를 3년 정도 운영해 오는 동안 사업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장 재편과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수익증대로 주민들의 생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을주민들에게는 품질 좋은 생산물을 제공하고 액션 그룹은 그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판매 전략으로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가구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새마을 전국 우수사례인 마을 특성을 살려 브랜드화를 시키고 마을 공동체의 궁극적 목표인 마을 단결과 화목 그리고 원활한 소통에 이바지하면서 관내 및 인근 타 도시 마트에 납품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굳건해지는 마을공동체”

올해 사업에서는 할매텃밭 환경 개선, 스티커 제작, 포장 샘플 구입, 동선 개선, 새마을 굿즈 상품구입, 포장 및 제품 진열 교육, SNS홍보 및 법인 설립 자문을 받았으며 가장 큰 성과는 마을 단결과 화목 그리고 원활한 소통으로 마을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은 역량강화 교육의 효과는 유계리 마을회 자체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2023년에는 사업장 개편과 실무자들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수익창출로 주민들의 생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며 생산, 판매 공간 확대 및 증축 등을 이루고 농산물 가공, 세척, 정밀 포장 등을 기계화하여 공주 관내 및 인근 타 도시 마트 등에 납품을 하고 싶다.



사업이 끝나더라도 할매텃밭을 더 활성화시켜 마을 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생산물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생산하는 정성 가득한 농산물과 기타 생산물을 공주 관내 및 인근 타 도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도농이 직접 연결되게 할 것이다. 도시민과 농촌의 화합으로 많은 고객들이 마을을 방문하면 마을 주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야하기 때문에 공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신풍애 먹거리 - 우리를 알리자~

공주시 신풍면



(주) 신풍애농부들 농업회사

- 대표자명 : 이관섭
- 구 성 원 : 박하준 신정민 외 14인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풍면





공주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코로나 시국에 지쳐 심신 회복 차 공주시 신평면에서 ‘오도이촌’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중 신평면의 노련한 어르신 농부들을 알게 되고 공주시 농산물과 지역 공간을 활용한 건강한 농촌문화라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신평애농부들’ 농업 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1차년도 사업은 “우리를 알리자” 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법인과 젊은 구성원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겠지만 설립 시 계획했던 중장기적인 5차년도 로드맵을 토대로 매년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공주시를 비롯하여 충남 지역까지 ‘선한 영향력’ 을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에게 선사하고 싶습니다.

“함께 소통해서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1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신평애농부들’ 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 당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주시 관내에서 오프라인으로 대면활동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소기의 목표 달성을 하게 되었고 그외 공동체 액션그룹 구성원 분들을 만나게 되어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공동체 내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어려운 일입니다. 소통을 통해 설득하는 과정들은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공동체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의 연장선으로 내부적으로는 경영, 운영, 마케팅 등 역량 강화를 하고 싶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타 액션그룹 구성원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홍보 마케팅)에 대해 공유하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공주시를 만드는 선한 영향력”





신풍애농부들은 공주시의 '오아시스' 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필요에 의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의 최종 사업목표인 여가문화플랫폼(교육, 놀이, 판매, 쉼터, 체험 등)으로 다양한 사업영역을 통해 신풍면에서 젊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어르신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다음을 준비하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더 건강하고 살고 싶은 공주시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었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



공주농촌생각플러스 포럼

2022. 9. 22. 중장초체험휴양마을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미래상상 키워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미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2. 공동비전맵 슬로건 선정(총 68명 투표)

공동비전맵 슬로건을 선택해주세요!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농촌생활력플러스사업 공동비전맵 슬로건 도출 및 고충사항 찾기라는 주제로 중장초등학교 체험휴양마을에서 액션그룹 리더 78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3시간 동안 포럼이 열렸다.
주된 내용은 농촌생활력플러스사업 공동비전맵 슬로건을 도출하고 사업 수행 시 고충사항 및 필요한 자문을 찾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행복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2022. 12. 8. 고마아트센터 컨벤션홀





33개 액션그룹 상징 이미지



공주계실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민음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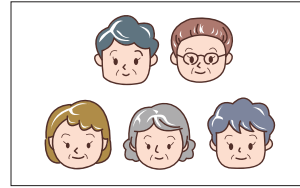
바베큐두렁마을



열린누리



농업회사법인공드림(주)



오색공주



사봄연



수백향



농업회사법인 (주)밤이면밤마다



농업회사법인 밤돌이마을(주)



봉곡2리 마을회



유구인건연구회협동조합



공주시귀농귀촌협의회



신학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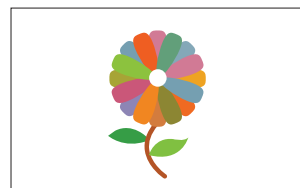
공주역사문화사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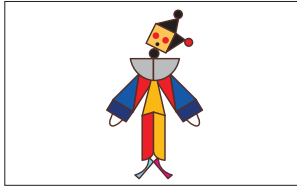
금강달빛문화창작소



도시텃밭연구소



리사 그리너리



마을에서 행복찾는 사람들



공주시정원문화연구소



고마무지개



자리이타



고마재주꾼



(주)공스타



공주시청년보상협동조합



(주)어콜렉티브그레인 농업회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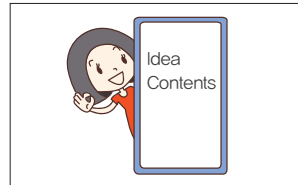
컴바인랩



계룡산담쟁이축제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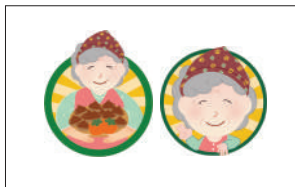
고마와유협동조합



공주상인 협동조합



공주향협동조합



유계리 마을회



(주)신공애농부들 농업회사

편집인_ 백인순, 신미예, 박보경

발행처_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충청남도 공주시 해지개길 19-3
문의) 041 840 8693

발행일_ 2023. 02

※ 본 자료집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